

학생회 보궐선거 내일(25일) 부터 3일간

지난 27일 합동유세 진행 ... 후보자들, 투표참여 호소



지난 20일 필동도에서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합동유세가 있었다.

2003학년도 학생회 보궐선거 투표가 내일(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투표는 각 단과대 건물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야간강좌는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이다.

개표는 27일 자 정부 본관 중강당에서 한다.

이에 앞서 총학생회후보자 합동유세가 지난 20일 필동도 앞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기호 1번 정 김규배(물리4)·부 이홍범(기계공4) 조와 기호 2번 정 유영빈(경영4)·부 이상현(야간경영4) 조는 주요공약에 대해 말하며 학생들에게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먼저 유세에 나선 기호1번 김규배·이홍범 조는 등록금 인상과 교

수채용 등 학내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직원·종단대표 등 모든 구성원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동국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총련은 조직운영에 있어 공개성이 부족하다"며 재정 등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한총련을 탈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 △TOEIC 강좌개설 △이공계·법대·경영대 동아리 활성화 방안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어 기호2번 유영빈·이상현 조는 등록금·모집단위 광역화 등 학내 현안에 대해 알리며 문예공연을 통해 유세를 시작했다.

기호 2번은 등록금 책정 시 학생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등록금 책정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온라인 네티즌 위크를 구성해 학생과 학생회간의 쌍방향 의견교환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외에 △우리와 발전위원회 신설 △학부제 재검토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공감을 확보하지 못해 당일 유세장소가 변경되고 시간이 지연되는 등 미숙한 운영 속에 진행됐다.

dmz@donggu.ac.kr



반전·평화 외치는 촛불 ...

이리크 공습이 시작된 지난 20일 밤 광화문에서 전쟁과 국군파병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대학생 등을 비롯한 5천 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전쟁·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 관련기사 4면(사회)

김진성 기자
yean@donggu.edu

본교 직원 인사발령 총 36명 발령

본교가 지난 10일 직원인사를 단행했다.

직위승진 인사는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장=김종철 △의료원 기획관리실 구매과장 서리=문용주이다.

전보인사는 △학생처 학생복지실장=정창현 △교육대학원 교학부장=구태회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장=김중진 △체육실장=안중욱 △출판부장=이철교 △교육방송국장=이종석 △경주병원 사무국장=하정운 △서울강남한방병원 원무부장=차주환 △기획인사처 기획심사팀장=박동수 △기획인사처 예산팀장=박승중 △대의협력처 기획사업팀장=김준호 △연구처 연구지원팀장=이성진 △총무처 총무팀장=이천중 △총무처 시설관리팀장=백경선 △총무처 재무회계팀장=김영인 △총무처 구매팀장=오광진 △정보관리실 정보자원관리팀장=이익성 △야간강좌 교학처 교학과장=박광호 △가상대학 교학과장=나병욱 △의료원 기획관리실 기획감사과장=이건배 △경주병원 경리과장=박환오 △비서실=주성재 △기획인사처 기획심사팀=김윤길 △개교100주년 기

중장기 발전계획 논의기구 신설

경영전략실 ... 의견수렴 통한 계획 수립해야

학내 주요 사안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세우는 경영전략실(실장=김진선·회계학)이 신설돼 앞으로 본교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발족한 경영전략실은 △재정운영 분석과 평가 △중장기 투자사업 검토 분석·전략 수립 △공간확보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선 실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가 아닌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적합한 발전방향에 대해 자문하는 한시

적 기구"라고 말했다. 경영전략실은 우선 그동안 집행된 재정을 분석하고 타·외국 대학의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전략실의 구성으로 장기적 계획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진선 실장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분석과 투자계획이 함께 진행돼 현실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전략실은 앞으로 논의될 사안에 따라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된 한시적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전문성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본교는 학교측의 일방통행적 업무처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따라서 학내 의견수렴을 거친 합의를 통한 발전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ac.kr

학생과 함께 하는 학생회 건설할 것

1번 "총운위 안전 과학생회로 부터", 2번 "우리와 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본사 대학부는 학생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획을 통해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임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실패를 예견했다.

편집자

학생회 보궐선거

① 설문조사

② 후보자 공약분석

제35대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경선으로 진행됨에 따라 임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본사는 선거에 임후보한 기호 1번 후보 정 김규배·부 이홍범 군과 기호2번 정 유영빈·부 이상현 군과의 좌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살펴보았다.

> 관련기사 6,7면(주제기획) '함께해요' 우리 총학생회.

선거 모토와 공약에서도 나타나 듯 이번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학생과 함께 하는 학생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각 후보들은 무엇보다 학생회 운영방식의 변화를 통해 학생회 위기를 타파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1번은 학생들과의 토론부재를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으로 보고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안전을 백지 안전지를 통해 과 학생회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은 그동안 과학생회와 총학생회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사이버 학생회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와 발전 특별위원회'를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2면으로 이어짐

대학부

dmz@donggu.edu

11기 한총련의장 선출 지연

서총련 의장엔 고려대 박재익군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제11기 한총련 의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예정된 대의원대회는 재적인원 766명 중 대의원 성원 241명이 참석해 무산됐다. 이날

대회장에 참석한 인원은 326명이었으나 대의원대회 장소문제 △총청 총련 의장의 대표성 인정 여부 논란 끝에 이 중 85명이 성원 자격을 가진 포기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달 11일

부터 사흘간 같은 장소인 경희대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0일 한국 외국어대에서 열린 제16기 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고려대 박재익 총학생회장이 관운대 김성훈 총학생회장을 17표 차로 누르고 서총련 의장에 당선됐다.

그는 "후보기간 동안 이어온 학생운동의 단결과 혁신에 대해 더욱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교외연구비 약 148억원 2001년보다 12여 억원 증가

본교 2002학년도 교외연구비 수주액이 148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 2001학년도보다 약 1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외연구비는 학술재단 또는 정부에서 공모한 연구과제를 신청한 교수 중 선발된 교수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처의 한 관계자는 "외부 연구과제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리소

평화는

최고의 축복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미움과 대립, 갈등과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가?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라크는 끝내 전쟁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번 전쟁은 '악의 축' 국가의 대량살상 무기를 없애기 위한 전쟁이라는 이른바 '정의의 전쟁'과 신의 뜻에 반하는 무리와 시온주의자들의 음모에 맞서 싸운다는 '순교적 성전(지하드)'론의 명분으로 대결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위한 어떠한 명분도 불교의 제일계인 '불살생'의 원칙을 넘어서 수 없다고

본다. 불교의 윤리규범을 가르치는 '율장(律藏)'에는 "스스로 생명을 죽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죽이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이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모두 바라이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바라이죄란 불교 교단에서 추방될 만한 사후에도 큰 업보를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중죄를 말한다.

초기경전에는 붓다가 폭력에 대해 자비의 힘으로 조복시킨 설화가 많이 나오고 있다. 살인

자 앙굴리말라를 자비의 위신력으로 교화시킨 이야기, 코살라국의 석가족 침입에 대한 침묵시위 등 붓다가 보여준 언행은 자비보다 더 큰 힘은 없으며 폭력으로 폭력을 대응해서는 결국 보복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는 평화를 회구하면서도 항시 전쟁 준비에 열중해 왔다. 인간은 전쟁을 두려워하며 이를 최대의 악행으로 증오하면서도, 오직 힘에 의한 평화만이 가장 확실하다는 잘못된 신앙을 지니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미움은 더 큰 미움을 가져오고, 살생의 업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과보를 가져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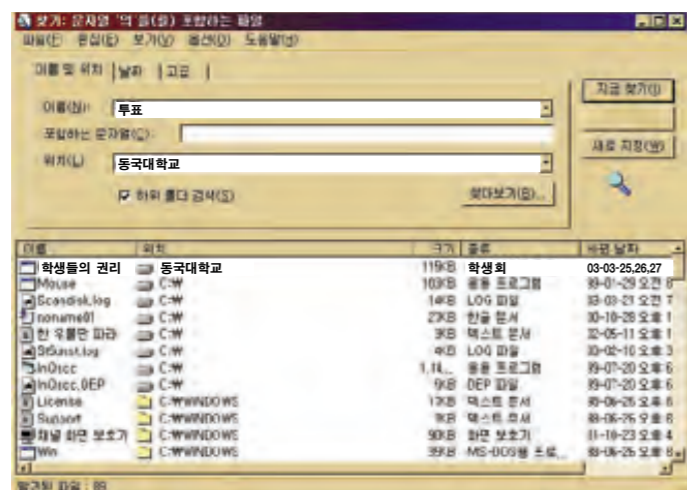
붓다는 "평화(sam)는 그 어떤 축복보다 높은 축복"이라고 하였다. 평화의 성취를 위한 노력은 먼저 인간의 내적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내부의 탐욕과 분노와 무지의 미움을 다스림으로써 자기 마음의 평화는 물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김용표
불교대학 불교학과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투표는 '권리찾기'의 시작입니다.



오는 25(화), 26, 27일은 우리의 의견을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일입니다. 투표참여와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갑시다.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3면 신임처장 릴레이 인터뷰



지난 1일 대대적인 보직인사가 단행됐다. 이에 본사는 신임처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운영방식에 대해 들어보았다.

4면 안네의 가상 편지

유태인 안네의 가상 편지를 통해 이라크전의 근본성격을 살펴본다.

12면 문화생활지수

설문조사를 통해 동국인의 문화생활지수를 알아본다.

구도서관 이번 학기부터 공사 시작

중앙도서관 열람실 부족 ... 시험 대비한 열람실 확보돼야

구도서관이 △1층=강의실 △2·3층=열람실 △4층=교수 연구실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이번 학기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한다. 또한 공사에 필요한 재정과 소요기간은 공사의 규모가 확정된 후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학교측은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현 건물의 리모델링 △내부 수리를 통한 용도변경의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공간배치는 신도서관을 자료실로, 구도서관을 열람실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입장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도서관 1층이 일부 법대 전용 강의실로 배치돼 동국관 공간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김중철 학술정보서비스팀장은 “구도서관의 리모델링이 끝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열람실 부족, 소음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구도서관의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까지 부족한 열람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 중앙도서관은 자료실 중심의 개

가식으로 운영돼 구도서관에 비해 열람실 좌석수가 약300여석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지산(영어영문3) 양은 “특히 시험기간 열람실 부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구도서관의 경우 책상, 형광등과 같은 집기를 수거해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시험기간 강의실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진행된 학교측과의 면담에서 학생자치기구인 ‘도서관

자치 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논의자리를 만들겠지만 현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중앙도서관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중앙계단에 카페트를 설치하거나 3층 열람실 주변의 휴게공간을 없애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서관 내 450여 개의 사물함을 설치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학부 dmz@dongguk.edu

회전무대

불협이중주

0...지난주 진행된 총학생회선거 합동유세 때 일부 학생들은 유세가 두 곳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데.

이유인즉 유세시간이 늦어져 피켓 시위시간과 겹치게 되자 한 단과대가 유세장 부근에서 시위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올해는 합동유세가 한번뿐인 만큼 사전에 행사시간조율을 해야 했을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사전조율 없이 시작된 연주, 결국에는 불협화음으로 끝나네요(!)”

배부른 핑계

0...학내 주차공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가 여전하다는데.

알아보니 중앙도서관에 지하주차장이 신설됐지만 진입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편의만을 고려한 몇몇 운전자들이 무리하게 주차해 여전히 통행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

이에 한 운전자 왈, “명석 갈아주면 하지않는 동학 자동차는 청개구리(?)”

e(름만) - class

0...이번 학기 새로 개설된 e-class에 접속한 학생들은 허전함을 느끼기 십상이라는데.

이유인즉 개강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참여가 부족해 링크된 과목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수강신청 과목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접할 수 있어 편리한 e-class만 교수자 정보를 게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클릭 한번에 수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얻는 꿈은 일장춘몽에 그치나요(!)”

선착순

0...최근 강의실 무단점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동아리, 소모임 등이 사전 허가 없이 강의실에서 개강총회,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로 인해 사전에 강의실을 빌린 학생들은 시작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보게 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강의실 사용, 예약보다 새치기가 우선(!)”

총장·학생회 1차 면담

“등책협구성·재책정 불가”

양측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임수욱·화공4, 이하 비대위)가 요구한 △등록금 책정협의회(이하 등책협) 구성 △등록금 재책정에 대해 학교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등록금과 관련한 양측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은 학생대표와 가진 1차 면담에서 “학교는 재정 등 학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등책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학생측은 등록금 책정시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책협 구성을 요구하며 “민주적 소통기구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측은 학교가 학생들과 평등한 관계로 등록금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등록금 재책정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편성된 예산에

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해 재책정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이날 면담에는 경주·대학원 대표도 참석해 학내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병삼(불교학과 박사과정)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10학기 분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학해택, 복지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기삼 총장은 “외국연수기회와 장학혜택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주 부총장의 권한을 강화해 경주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비대위는 등록금 납부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적정금과 가결산안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오는 31일 열리는 학생대표자회의에서 등록금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003학년도 예산안은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통과됐으며 4월 중순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시행착오 ... 중앙도서관이 열람실 내 학습분위기 조성과 자리 맡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주부터 지정좌석제를 시행했다. 시행 첫 주 기계상의 오류로 자주 중단되는 등 혼란을 일으켰으나 열람실 좌석 부족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 1면에서 이어짐

또한 학내 주요사안에 대해 기호 1번은 학생, 교수, 직원, 재·종단의 대표자 등 전 동국인이 참여하는 ‘동국발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호 2번은 등록금 책정협의회를 통해 등록금 책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두 후보 모두 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 밖에 교육환경개선으로 기호 1번은 △교양강좌 모니터 요원 모집 △전공 필수제의 부활 △취업지원팀 재정 확충 △이공계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기호 2번은 △사물함 설치 △교양강좌 개설 △재단전

입금 확충방안 △학내 영화상영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수강신청 취소 기간 오는 27일 부터 2일 간

수강신청과목 취소가 오는 27일부터 2일간 진행된다. 수강신청과목 취소는 교학과에서 취소신청서를 받은 후 학업지도교수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수강신청 취소는 학년별 최저 이수학점(12학점, 단 4학년은 3학점) 이상까지 가능하다.

새터사고 피해보상 요구

대책본부, 지난 18일 내용증명서 전달

새터사고 대책본부(본부장=임수욱·화공4, 이하 대책본부)가 지난 18일 속리산 신정 유스호텔과 나들이 기획사에 사건 내용을 소명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대책본부는 신정 유스호텔측에 집단탈수현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숙박비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본교에 앞서 속소를 이용한 단과대, 연세대가 같은 증상을 보였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데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나들이 기획사에 대해 차량과 도시락 계약에 대한 위반을 지적하며 △차량 미지급 금액 지불 △도시락 금액의 30% 환불과 함께 사과문을 요구했다.

K교수 개설강의 폐강

수강인원 미달 ... 공대위, 강사충원 요구

제자를 성취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복직한 사회학과 K교수가 강의하기로 예정된 △사회정책론 △사회문제세미나 과목이 개설가능 최소 인원 7명에 미달돼 폐강됐다. 이는 3학기 연속 강의개설 인원 미달로 폐강된 것이다. 이로써 K교수는 이번 학기 대학원 수업 한 강좌만 강의하게 됐다.

이에 대해 사회학과 학생은 “교

수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수업 폐강은 커리큘럼 부족문제로 이어진다”며 “사전에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3, 4학년 전공수업이 5개로 부족한 상황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학교측에 사회학과 강사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K교수는 이번 학기 학과 지도교수로 선정됐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무효 처리됐다.

취업희망원 배부

조건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팀이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희망원을 배부한다. 취업희망원은 학생들이 입사 희망분야와 외국어성적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취업지원팀이 이를 바탕으로 조건에 맞는 기업의 입사전형을 개별 공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취업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희망분야 기업의 취업 관련 정보를 공지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희망원은 각 단과대 교과과를 통해 수시로 배부된다.

동아대 △동의대 △원광대 △제주산업대 △한라대와 함께 2조에 편성됐으며 오는 29일 오후 2시 인천야구장에서 경성대학교와 첫 경기를 갖는다.

이번 대회 예선은 조별리그, 결선은 각 조의 상위 2팀이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다음달 16일까지 동대문야구장과 인천야구장에서 열린다.

한편,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에 출전했던 축구부는 32장에서 승실대에 승부차기 2:1로 패해 탈락했다.

교양수학 개인교습실 운영

일반수학·수학개론 등

이과대학 수학과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양수학 교과목인 △일반수학 △수학개론 △응용수학 등에 대해 개인교습실을 운영한다.

강의는 오늘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월, 화, 목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장소는 명진관 402호이다.

한국어학당 24일 개강

매주 수요일 문화체험

2003학년도 봄학기 한국어학당 개강식이 오늘(24일) 오전 11시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국어학당은 외국인교포들을 대상으로 계절마다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매주 수요일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민속촌 등을 방문한다.

이번 학기는 100여명의 학생이 신청해 오는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삼성테크윈 채용상담 실시

25일 다항관 세미나실

주식회사 삼성테크윈이 내일(25일) 오전 10시부터 다항관 세미나실에서 채용 상담을 실시한다.

모집부문은 △연구개발 △마케팅 △디자인 △경영지원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해당분야 전공자로 2003년 2월 졸업했거나 2003년 8월, 2004년 2월 졸업예정자이고 토익점수가 △인문계=730 △이공계=620점 이상인 학생이어야 한다.

야구부, 춘계리그전 출전

오는 29일 경성대와 첫경기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가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 출전한다.

본교는 △고려대 △경성대 △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신입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TOEIC 정보

Step I . TOEIC이란 무엇인가?
TOEIC 이란 미국 교육 기관인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 의해 개발된 영어 운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TOEIC 에서는 일상생활 및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

Step II . TOEIC의 구성과 유형

테스트 구분	Part별 내용	문제수	시간	배점
Listening Comprehension	Part 1 사진묘사	20문제	45분	495점
	Part 2 질의응답	30문제		
	Part3 짧은 대화	30문제		
	Part4 설명문	20문제		
Reading Comprehension	Part1 문법 어휘	40문제	75분	495점
	Part2 틀린문장 고치기	20문제		
	Part3 독해	40문제		

◆ 영어 패스제 (English Proficiency Test)

구분	TOEFL	TOEIC	TEPS	
불교대	487점 이상	550점 이상	433점 이상	
문과대	일 반	505점 이상	600점 이상	483점 이상
	영어영문	540점 이상	700점 이상	600점 이상
이과대	512점 이상	620점 이상	505점 이상	
법과대	533점 이상	680점 이상	575점 이상	
사회과학대	522점 이상	650점 이상	539점 이상	
경영대	533점 이상	680점 이상	575점 이상	
생명자원과학대	505점 이상	600점 이상	483점 이상	
공과대	522점 이상	650점 이상	539점 이상	
정보산업대	533점 이상	680점 이상	575점 이상	
사범대	일 반	505점 이상	600점 이상	483점 이상
	체육교육			
예술대	미 술			
	연 극			
영화영상	533점 이상	680점 이상	575점 이상	
아간강좌				

▶ 외부 공인기관 인증시험외에, 본교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패스제 시험(학기당 1회 실시)”의 시험점수 인정

◆ 멀티미디어실 안내

본 언어연구교육원 소속 멀티미디어실은 외국어 학습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첨단 기자재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청각교육 시설을 탈피하여 동영상 외국어 교육과 학습을 가능케 하는 PC(70석) 시설과 Audio-Video전용 시설(27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외국어 교육은 물론 NBC, STAR, NHK, AFKN 위성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고, 방대한 교육자료가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배양에 적극적이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 운영시간 학기 중 : 09:00~21:00, 주말 : 10:00~16:00, 방학기간 : 10:00~16:00

◆ Web TOEIC 안내 (수강생은 무료)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 접속으로 원하는 과정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정별로 Intro, L/C, Grammar, R/C 의 각 20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학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접속 → 재학생 서비스 → 웹토익

▶ 수강료 15,000원(온라인 입금) / 예금주 언어연구교육원 / 계좌번호 조흥은행 371-04-392858

▶ 해당 신입생 및 재학생은 위포에 제시되어 있는 점수를 졸업시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불교대학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 편입생은 2003학년도 편입생부터 (불교대학은 2004학년도 편입생 부터)

▶ 미시행 학과 : 체육교육, 미술, 연극, 문예창작, 아간강좌

▶ 자격요건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임처장
클레이 인터뷰

- ① 대외협력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 ② 기획인사처장, 연구처장, 총무처장

본교는 지난 1일 대대적인 보직인사를 개편했다. 이에 두차례에 걸친 신임처장 클레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연재기획 '등록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는 학교 기예산안 확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당분간 연기합니다.



대외협력처장 유덕기 교수

대외협력처는 학교가 추진하는 사업 중 자금 조성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특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발전기금 모금, '개교 100주년 기념 박영석 동문 산악그랜드슬램 달성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유덕기(생명자원산업융합) 신임

대외협력처

“발전기금 조성·확충사업에 중점 둘 계획”

대외협력처장을 만나 발전기금 유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취임 소감.

= 현재 본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자금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대외협력처의 주요업무가 외부기관의 발전기금을 유치하는 것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 발전기금 유치 방안은.

= 불교병원 재원마련과 장학금·교수연구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유치

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불교계와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조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단과대와 연구소 등 각 단위별로 기금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위기금 조성'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병원건립 초기 발전기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개인이 늦어지는 이유를 정확히 알리고 병원기금조성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할 계획이다.

- 오는 2006년이면 개교 100주년을 맞게 된다. 구상 중인 사업이 있다면.

=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은 규모가 크고,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얼마전

발족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이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다. 비록 업무는 분리됐지만 앞으로 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 앞으로 계획은.

=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업무가 분리된 만큼 발전기금조성·확충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학내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동국사랑저금통 등의 홍보를 강화할 생각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교무처장 김무봉 교수

최근들어 각 대학들이 다양한 강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신임 김무봉(국어국문학) 교무처장을 만나 내년에 개편될 교과과정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교무처

“교과과정 개편통해 전공교육 내실화 할 것”

=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교과과정을 개발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안은.

= 수시모집 선발시 1단계로 논술을 시행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는 논술과 심층면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학금을 확충해 우수학생 유치를 박차를 가하겠다.

- 모집단위광역화 재검토에 대한 입장은.

= 모집단위광역화의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전공교육 부실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현재 모집단위 광역화의 존속여부에 대한 각 단과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모집단위광역화를 재검토 할 경우 내년 교과과정 개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 모집단위광역화가 개편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워 교과과정 개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모집단위광역화의 존속여부가 결정된 후

위원회를 구성해 교과과정개편에 대해 논의하겠다.

- 앞으로의 계획은.

= 수업시간을 엄격히 지키고 과제물을 늘리는 등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 졸업여건을 강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폐강기준을 완화시켜 소수의 학생이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학생처장 이관제 교수

학생처는 장학금·취업·학생자치기구 활동 지원 등 학생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에 신임 이관제(통계학) 학생처장을 만나 장학금 확충 등 학생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학생처

“다양한 대화창구 통해 학생들 불신 해소할 터”

- 취임 소감.

=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일을 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취업·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지난해 학생들이 요구한 교육환경 개선 부분 중 시행되지 않은 사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 매년 학교 당국과 학생측의 마찰이 되풀이되고 있다. 해결 방안은.

=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생긴 불신이 크다고 생각

한다. 앞으로 학생처를 통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다.

또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등을 자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호소하기 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

=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동국 커리어 엘리트 프로그램'을 마련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등 취업에 실용성 있는 분야의 강화를 개설하고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장학금 수혜혜택을 늘리기 위해 기금사용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고 외부기금 유치를 확대할 것이다.

- 학생처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앞으로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 많이 마련해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학생들 또한 성급한 행동을 취하기 보다 학교에 대해 신뢰를 갖기를 바란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사설

참여하는 학생회, 투표로 시작하자

내일(25일)부터 3일간 '다시' '축제'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왜 굳이 '다시'와 '축제'를 강조하는지는 지난해 11월 '총학생회선거 무산 사태'를 기억하고 있는 동학인이라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회 선거가 학생 개인의 이해와 입장을 반영, 대변하는 대표자 선출의 민주적 절차라는 점, 이는 강조하지 않아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는 50%를 밑도는 투표를 미달 사태를 보이며 대표자를 세우지 못했다. 이는 이후 새터, 등록금 협의 등 학생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진함과 미흡함으로 이어졌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 학생회의 위기. 이를 단순히 학생회만의 위기나 잘못으로 치부하며 학생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안일한 도피나 외면에 지나지 않는다. 동학을 '함께' 누비는 '우리'라면, 또 학생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진정 비판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동국인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번 선거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다시' 진행되는 이번 보궐선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보궐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진다. 단순히 찬성과 반대 차원이 아닌 두 후보를 견주어 봐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선택 여하에 따라 앞으로의 1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참여와 권리 행사의 '축제'로 마무리지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선택과 결정의 판단기준은 어디까지나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에 준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공약이 너무 추상적인 것은 아닌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또는 표를 의식한 공약,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따져보고 비교, 검증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총학생회 선거 역시 '정책선거'로 이뤄내야 한다고 하겠다.

'바꿀 수 있는 용기 함께해요' '12950의 100% 교감, 우리동국 우리학생회', 학생회만이 아닌 일반 학생 모두와 '함께' 하는 '우리'의 학생회를 만들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다짐과 약속은 각 후보의 모토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제 유권자 차례다. 동학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든', '우리' 학생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과 약속을 '한 표 행사'로 당당히 보여주자.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니 말이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김주환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	김문철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국장	류면성		
편집장	한보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1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358 팩스 (054)770-2357

동대신문 기획광고

이적규정, 그들에게겐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지난 97년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후 지금까지 구속된 학생만 780여명, 지금도 180여명의 학생들이 수배라는 사슬에 묶여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 이제는 그들의 짐을 내리고 '날개'를 달아줄 때입니다.

한총련 합법화,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동대신문사

동약로

성역은 있다



“경찰이잖아? 학교에 어떻게 들어왔지?”
지난주 수요일 만해공장에서 한창 진행되던 동아리공연 분위기가 한순간 어수선했었다. 경찰이 난데없이 나타나 잦았다.

공연소리가 시끄럽다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학교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학생들은 학내에서 공연을 진행하면서도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되는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학은 성역으로 인정되는 만큼 경찰이 공무수행을 위해 자의적으로 출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경찰은 학교측에 어떤 설명도 없이 민원사건 하나 때문에 학교에 진입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학교에 먼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요청했다면 학교 차원에서 학생지도가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다.

“민원이 들어왔으면 경찰이 학교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는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이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경찰을 막을 수 없었다해도 사건에 대해 알게된 후에도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했지만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는 동아리 공연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조만간 대학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동제가 진행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는 학내에 소음이 발생하면 경찰이 얼마든지 학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당시 주위에는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수배 중인 학생도 있었다. 다행히 큰 일 없이 끝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학교 허가 없이 학내에 공무집행 등을 이유로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당국은 앞으로 학문의 상아탑이라는 대학 내에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안네가 보내는 가상편지

이라크 친구들에게

지난 20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미 언론을 ‘따라가면’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라크 전쟁의 본질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이라크 전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중동문제의 ‘역사적 배경’인 미국과 영국의 중동 개입 문제를 유대인 안네의 가상편지를 통해 살펴본다.

안네 프랑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에 쫓겨 은신하다가 아우슈비츠에 수용되기 전까지 자신의 일기를 남긴 실존 인물이다. 특별히 안네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다. 이라크 전쟁이 안네가 겪었던 제국주의 전쟁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 유대인과 아랍인간의 갈등은 이라크 전쟁을 포함한 모든 중동문제의 모순을 상징한다는 점 때문이다.

편집자

‘미음속 깊은 곳에 있어서는 청년이 노인보다 더 고독한 것이다’

나는 어느 책에서 본 이 구절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요즘처럼 인간의 가장 나쁜 면이 드러나 ‘진리’마저 의심스러운 시대에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지킨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상도, 꿈도, 동경도 냉정한 현실에 직면하면 곧 깨져 버린다.

제가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기 20여 일 전에 썼던 일기의 일부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터진 지난 20일, 그 일기를 다시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포탄소리가 이라크의 새벽 하늘을 찢어놓는 지금,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미 대통령의 말에 누구보다 분노할 ‘청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건 찾기를 좋아하는 저는, 갑자기 ‘제국주의’라는 낱말의 뜻을 찾아봅니다. ‘원료 공급지, 상품시장, 그리고 잉여자본의 투자지역을 찾아 무력으로 식민화 하려는 것’. 석유가 현대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라는 사실, 그리고 미국에는 팔아야 할 무기가 잔뜩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라크 전쟁이 ‘악의 축’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목에 이르러, 저는 종교·문화적 차이만으로 ‘악마’ ‘열등 민족’ 취급을 받아야 했던 우리 유대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다지요, “일반적인 억압을 ‘충돌’이라 말하기도 맞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문명이 충돌했다기보다 문명 속 일부 광기와 야집, 독선이 충돌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야집과 독선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것을 21세기에도 보게 되는군요.

제국주의 전쟁 꼭 빼앗아

지금 이라크로 쳐들어가는 영국군과 미국군을, 저는 2차 대전 말기에 “멈추지 말라”며 응원했습니다. 나치에게 쫓기는 저를 구하러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국주의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영원히 약자의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이제 더는 약자가 아닌 유대인들은, 영국·미국의 강력한 ‘친구’가 되지 않았겠어요.

나는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면서 묘한 죄의식을 느낍니다. 당신들 속에서 나의 옛 모습을 찾게 되는 데도 말입니다. 그건 아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이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영국’과 ‘미국’을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지금 바그다드에 미사일을 퍼붓고 있을 그들 말입니다.

50년 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2천년 전 우리 땅(시온)을 찾겠다’며 갑자기 몰려든 60만명의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웠겠지요. 사실 그곳은 2천년 동안 5%의 유대인과 95%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던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워 요충지를 빼앗은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민신세로 떠돌게 된 것에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영의 ‘죄’는 50여년 전부터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똑같은 지역을 두고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는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두 민족을 우려했던 것이지요. 아무튼 이 약속은 서구 유럽에서 오랫동안 박해받던 유대인들의 ‘시온주의(시온으로 돌아가자)’를 강렬하게 자극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에 경제적인 도움을 준 유대인들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보답은 결국 중동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은 48년 이후 지금까지 중동지역 패권을 위해 일방적인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쳐, 아랍인들의 반미감정이 반이스라엘 감정과 한데 얽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이라크 친구 여러분, 미국과 영국의 ‘죄’는 바로 여기서부터 몰아야 할 것입니다.

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과 영국의 책임을 물어도 우리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고통은 대로 깊어져 이미 적대감으로 변한 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 대부분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엇을 더 말해야 할까요. 지난 2천년간 서구열강에 몸을 굽이지 못했던 우리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평을 물리는 폭발음 속에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당신과 60여년 전의 저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저의 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가 차츰 황폐해 가는 것을 보고, 우리들을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폭풍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수백만의 피로움을 직접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늘을 우러러볼 때면, 침묵한 것이 끝나고 평화와 고요가 다시 찾아오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까닭은, 인간의 본성이란 결국 선량하다는 걸 아직도 믿기 때문이다.

바그다드 공습이 시작된 날. 안네 프랑크로부터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평화외친 ‘반딧불이’

전쟁당일 촛불시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시작된 지난 20일, 광화문의 촛불도 다시 뜨겁게 타올랐다.

“전쟁이 일어난 당일 오후 7시,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이자”는 사전 계획대로 반전평화 촛불시위가 6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여중생 범국민대책위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한 손에는 피켓과 깃발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 학생들은 5천여 명. 이들은 ‘NO WAR’ ‘Don’t attack Iraq’ ‘파병철폐’ 등을 외치며 전쟁 반대에 함께 미국을 지지한 노 대통령에 대한 항의를 표했다.

연설에 나선 최열 환경연합 대표 표는 “열일 제쳐 두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쟁반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매 일같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전쟁반대를 외친 이오 경숙 여성단체연합 대표도 “훗날 우리의 아이들에게 잔혹한 전쟁 이야기가 아닌 윤곽으로 전쟁을 막아낸 평화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전 당일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지지하고 파병을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규탄 발언도 끊이지 않았다.

이광복 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 공동대표는 “전쟁 지지와 파병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우리나라 헌법 제5조 1항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을 향해 적극적·지속적으로 파병반대를 부르짖자”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요르단에 남아있는 이라크반전평화팀(IPT) 팀원 임영신(34) 씨의 편지가 전해지기도 했다. 임영신 씨는 “폭격 속에서 떨고 있을 이라크 아이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평화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반전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동대신문 기획광고

전쟁을 막진 못했지만 우리는 계속 ‘반전’을 외쳐야 합니다.

지난 13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반전 평화 서명운동에 동참한 분들입니다.

박소연(신방4) 미국의 횡포에 경고를.....
오원기(정외4) 전쟁은 민중을 압살합니다. 이라크 침공 반대!
서영건(사회4) 미국이여 이성을 찾으시오. 석유는 돈주고 사라!

김민정(신방2) STOP THE WAR!
정새미(사과대1) 전쟁 싫어!
구자용(경제2) fuck off, Bush!
정재필(사과대1) peace!

최혜진(사과대1) 전쟁반대.
곽창근(법1) 전쟁은 악이다!
김민영(사회4) 나들이 나가서 직접 싸워봐.

표형섭(한외3) F~ You!
기창수(국제통상4) 절대 반대!
권승이(사과대1) 부시야!

임소연(정보관리3)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라!
라인호(이과대1) love and peace.
차경윤(정외2) Anti-war, Against capitalism!



○○학 관점으로 본 '학벌'

노무현 정부는 학벌을 성·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 차별과 함께 5대 차별로 규정, 학벌타파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각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론회 등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기도 하다. 이에 학술면에서는 '학벌타파' 문제를 철학, 법학, 경제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 '학벌주의'의 문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反 합리적·보편적 이성”

철학은 인간 및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보편적이며 합리적인(이치에 합당한) 법칙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온 사유의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사회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몇 년 전부터 학벌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사회 구성원들의 커다란 부분에서 학벌을 '문제'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현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왜 '문제'인가. 학벌은 합리적, 보편적 이성의 시각에서 생각할 때 왜곡된 사회 구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왜곡된 사회 구조라 함은 일제 지배 기간 동안 일본인들은 자기네들의 지배 논리에 따라 우리 사회를 구조화했고, 해방 후 불안정한 시기에는 일제 지배 기간 동안에 형성된 기득권층이 또 다시 지배세력이 되었으며, 지난 20세기 후반에는 경제발전의 논리를 구실점으로 하여 기존의 지배세력이 우리 사회 속에서 더욱 탄탄하고 넓은 구조층을 이루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세력을 사람들은 흔히 학벌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는 해방 후 지난 세기까지 경제발전 및 정치적 민주화라는 커다란 문제를 지향해오나, 사회 곳곳의 왜곡된 구조를 드러내 수정하기에는 그 여력이 불충분했다. 그러나 이제, 왜곡된 구조 중의 하나인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 학벌타파 문제를 근본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인숙
문과대 철학과 교수

“기회균등의 원칙 위배”

— 철학 —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대학입시에 모든 것을 거는 기회적인 사회가 되었다. 그 이유는 대학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사회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특정대학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벌위주의 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직 대학의 간판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집단문화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인정이나 창설을 금지하고 있다. 학벌이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특수계급이 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특정대학을 나왔다고 취업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회적 신분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전문은 기회균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헌법 제15조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학벌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학벌타파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자리잡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상겸
법과대 법학과 교수

“비효율적 경쟁 낭기 마련”

— 법학 —

여타 경제 체제들에 비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몇 가지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경쟁이다.

그러나 경쟁은 당사자들에게는 고달픈 것이어서 경쟁을 피해 '담합'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존재하게 된다. 공무원들이나 기업 내의 인사에 있어서 일부 집단의 담합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를 막고 감독 및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비효율을 가져오기도 한다.

담합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경우가 많아 들어내 놓고 할 수 없고 이탈 동기도 있으므로 이의 유지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혈연, 지연과 함께 학연을 이용한 담합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혈연과 지연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학연은 그렇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학벌 경쟁에 매달린다.

이러한 학벌 경쟁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율적인 경쟁이 아니라 대학 입학으로 끝나는 '자기 유행기' 경쟁으로 비효율을 낭기 마련이다. 즉, 낭비적 지대 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벌주의는 대학 재학 중에 실력을 쌓거나 졸업 후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쟁을 오히려 저해시켜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해치게 된다. 하지만 객관적인 채용 선발시험이 부재할 경우 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신호효과'가 될 수 있어 이를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배형
사회과학대 경제학과 교수

연기영 교수의
뒤집어본 법이야기(2)



반민주악법 청산할 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원래 이 말은 그 당시 아테네 청년들에게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사상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반어적으로 설파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사형집행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악법을 고발하기 위해 독배를 마신 것이다. 그는 목숨을 걸고 악법에 저항한 위대한 법사상가였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이 어록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그 깊은 뜻이 왜곡되기 일쑤였다. 우리나라의 현대사 속에서는 개발 독재시대에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이념적 상징구조’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이제 한국사회도 노무현 ‘참여정부’와 함께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해 나아가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출범은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군사독재 체제에 저항했던 재야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로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많은 현직 정치인들이 지난 권위주의 정권의 독재정치에 항거하여 감옥살이까지 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들의 시기 ‘대낮의 촛불’과 같은 역할을 맡았던 ‘악법의 희생자’들이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특별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 반민주세력의 집단적 저항도 나타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12.12 내란, 5.18 항쟁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검찰 고위간부가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해 항의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현 정부의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뿌리에는 친일반민족 행각이 서려있다. 일제 해방 후 오늘날까지 친일반민족 세력들이 한국의 지배구조를 독점적으로 형성해 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법’을 양산해 왔다. 국가안보를 핑계삼아 ‘정권안보’의 도구로, 국제적 경쟁력을 명분 삼아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수단으로 온갖 악법들이 활개 치며 펼쳐진 것이다.

악법의 존재형태는 국가보안법 외에도 노동법, 교육관계법 등 다종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분단 반세기 이상 동안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보안법은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남북 두 정상이 회담을 한 상황에서 ‘한촌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독을 흡수 통일한 서독은 분단상황에서도 한국과 같은 국가보안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 요컨대, 분단상황이 국가보안법 유지의 정당화 논리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 밝은 미래를 꿈꾸는 선량한 국민들은 ‘악법’ 청산에 대한 기대가 크다.

— 경제학 —

학술단신

정연주 한겨레 논설주간 특강

사이버 참여연대가 회원 참여의 달 행사 5번째 순서로 한겨레신문 정연주 논설주간 특강 강연회를 오는 27일(목) 오후 7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연다.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미국과 한국 수구냉전연론의 행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723-4251

'한반도 평화체제' 토론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오는 28일(금) 서울 세종문화회관 컴퍼런스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윤태영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가 '정치-군사적 과제와 정책대안',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법-제도적 과제와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연구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 이서향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2250-2230

교수동정

△김낙년(경제학)=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분석' 워크샵 참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일간 일본 방문 예정.
△김대영(산림자원학)=제53회 일본목재학회 연차대회 참석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일본 방문 예정.
△이진구(전자공학)= 'TSMW 2003' 참석위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방문.
△이종태(산업시스템공학)=독일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 견학과 유럽남부 지역 IT현황 세미나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7일간 독일 등 유럽 방문.

경제학과 소모임 '동경' 공개세미나

단기전 ... 증시 회복 장기전 ... 증시 폭락

■ 이라크 전쟁의 경제적 파급효과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전쟁기간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변할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이라크전쟁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본교 경제학과 소모임 '동경'이 '이라크 전쟁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양문경(경제2) 군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증시가 폭락하고 있으며 소비심리도 하락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서는 "현재 IT산업 침체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 대량의 석유 확보와 군수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격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프랑스를 비롯한 러시아, 독일 등 전쟁을 반대하는 국가도 그 이면에는 석유 확보에서의 이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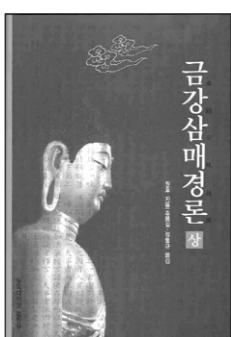
이어, 전쟁기간에 따른 경제 변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민윤주(경제2) 양은 이에 대해 "한 달 이하의 단기전이 되면 위축된 투자가 풀려 증시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져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전쟁이 예상보다 단기간에 끝나면 불안심리가 풀리면 세계 경제는 개전 전 예상했던 2.5% 성장률에서 3%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하지만 장기전으로 계속되면 1.5% 또는 그 이하의 경제성장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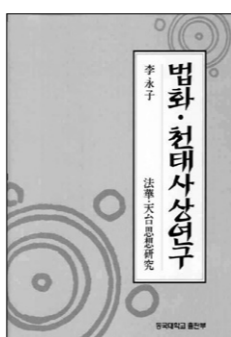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는 유가인상 대비 에너지 절약과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이 제시됐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동국대 출판부 도서안내 <http://home.dgu.ac.kr/~book/index.html>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금강삼매경론(상,하)
조용길, 정통규 옮김
상 : 474면 / 17,000원 / 하 : 573면 / 20,000원
중국 남북조시대에서 당(唐)나라 초기까지 중국불교에서 제기된 공(空)사상·반야(般若)사상·화엄(華嚴)·재가불교(在家佛敎) 등의 모든 교리를 다루고 있다.



법화·천태사상연구
이영자 / 469면 / 16,000원
이 책은 모두 세장으로 구성되어 천태사상의 발생에서부터 우리나라 천태사상의 전개까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불교와 종교철학
김용표 저 / 385면 / 15,000원
종교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명을 통해 불교를 보편적 조망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을 시도한 연구.



불교와 도가사상
김형배 저 / 388면 / 12,000원
이 책은 도가사상을 연구하면서 불교와 도가사상과의 연관성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던 저자가 사유경향·인식 방법론·참자어 증득의 측면에서 이 두 사상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설명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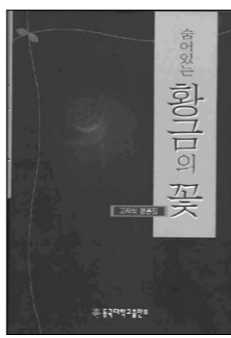
불교가사 원전연구
임기중 저 / 1155면 / 60,000원
신라 원효대사의 작품에서부터 20세기 춘원 이광수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불교가사 원전108편을 모두 모아서 한글원전을 주석하고, 그것을 다시 국한문용문으로 표기하여 한글현대문으로 각각 대비하였다.



불교가사연구
임기중 저 / 486면 / 19,000원
이 책은 저자가 앞서 출간한 '불교가사 원전연구'에 실린 불교가사 원전108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이론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한국불교학의 현대적 모색
목정배 저 / 487면 / 15,000원
한국불교학에 관련된 논문들이 다방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순수불교학에 관련된 논문들을 모으고, 제2편에서는 계율의 본래적인 의의를 논하고, 제3편에서는 한국불교의 신앙에 관하여 논하고 있으며, 제4편에서는 '한국의 불교운동사'를 통하여 근세의 불교상황을 자세하게 논하였다.



숨어있는 황금의 꽃
고재석 저 / 356면 / 11,000원
이 책은 '한용운의 문학과 그 시대', '1910년대, 그 소외된 문학과 작가', '현대문학사 그 어둠과 그 너머로' 총 3부를 통해 불교문화의 사실은 불교와 문학이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 성과 숙이라는 이를 배반적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역설적인 문학이라며 침체된 불교문화에 작은 빛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불교전서전집
한국불교전서 편찬위원회
각권 80,000원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불교계의 고승석덕, 명현 학자들이 남긴 옛 문헌들을 발굴 수집하여 전 13책으로 출간한 한국불교관계 학술자료의 대총서.

2003 학생회 보궐선거를

학생 의견 대변하는 자치기구로 거듭날 것

총학생회 보궐선거 후보자 좌담회

요즘 동약은 때아닌 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35대 총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보궐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좌담회를 통해 제35대 총학생회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1번 정 김규배(물리4)·부 이홍범(기계공4) 후보와 기호 2번 정 유영빈(경영4)·부 이상현(아간강좌 경영4) 후보의 학내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과 공약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호 1번 부 이홍범 후보는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좌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사회자 = 지난 34대 총학생회에 비춰왔을 때 현 학생회의 가장 큰 과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기호 1번 = 학생회가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여 학생들이 학생회와 멀어지게 된 큰 계기가 된 것 같다. 또한 총학생회와 과 학생회 등의 하위 학생회와의 토론부족으로 인해 학생회가 일반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담아내지 못했으며 학생들에게 직접 다가갈 의견을 듣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당선이 된다면 총학생회에서 단과대 학생회, 과 학생회로 의견이 전달되는 지금까지의 총학생회 운영 방안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의사소통 구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안건과 같은 경우 총학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백지 안건지를 준비, 하위 학생회 단위가 안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다.

기호 2번 =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에 맞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생회는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는 34대 총학생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생회가 학생들과 가까이 하지 못해 하나의 특화된 집단과 다른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선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학생회와 과 학생회에서 총학생회까지의 피드백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착안,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학생회'를 이용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 학생회를 통해 총학생회 소식 뿐 아니라 본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쌍방향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회자 = 등록금 투쟁, 교육환경 개선 등과 같은 학내 주요 사안들에 대한 의견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기호 2번 = 올해 등록금은 2002년도 가결산과 2003년도 가예산이 확정된 후 이에 합당하게 책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10% 인상됐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학교측에 근거 제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 책정 협의회(이하 등록협)'가 구성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강의개설권을 요구,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강좌를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제3캠퍼스 건립을 공론화하고 공간을 재배치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 이상 공간을 늘릴 수 없다면 모집인원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호 1번 = 등록금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기호 2번

후보자들의 생각과 비슷하다. 회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 학생의 입장으로서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등록금 5% 인상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학교측과의 소통기구가 일차적으로 등록협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등록금, 교과과정 등의 학내 사안은 별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등록협보다는 학생, 직원, 교수, 재·종단의 대표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국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국발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공간문제, 학부제와 관련된 문제 등 대부분의 학내 사안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국발전위원회는 본교가 한 단계 진보해 '일류 사립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자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에 대한 양측 후보의 시각에 차이가 있는데.

기호 1번 = 학생회는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35대 총학생회 보궐선거 입후보자가 모인 가운데 본사 주최 좌담회가 진행됐다.

가장 작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중조직이다. 따라서 학생조직을 이끌어 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으로서 갖게 되는 순수성이나 투명성이다.

하지만 한총련의 경우 조직 운영에 있어 연합체 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개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한가지 문제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총련을 고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번 선거 자체가 한총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선이 된다면 다시 한번 여론 수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기호 2번 = 일단 한총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워 기존 언론들이 내세웠던 한총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 염려돼 안타깝다.

한총련이 대의원 대회가 무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변화와 혁신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한총련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아닌 새로운 그리고 더 넓은 학생운동, 학생단체를 다시 이루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97년 이후 법적으로 가뒀는 상태에서 한총련을 폐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

는 만큼 민주적이고 재정이 공개될 수 있는 한총련으로서의 재탄생을, 현재 학생들의 요구 전반을 수렴할 수 있는 연합체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사회자 = 기호 1번 후보자의 '취업지원 도우미'와 기호 2번 후보자의 '우리와 발전 특별위원회' 공약에 대해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기호 2번 = 우리과 발전 특별위원회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서 구성할 계획이다. 일단 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과 학생회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학과에 모범이 될 만한 활동을 펼친 과 학생회를 선정할 것이다.

이는 계획적이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과의 노하우를 다른 과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총학생회와 과 학생회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기호 1번 =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현실에 비해 본교의 취업 관련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총학생회에서 취업을 지원하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단 학교측에 취업지원팀의 취업 담당 직원, 홈페이지 관리 담당 직원 등의 인원 확충을 요구할 계획이며 동문 선배들을 초청해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유명한 토익 강사를 초청해 무료 토익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사회자 =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학생들의 자치기구이다. 양 후보자 모두 언제나 이를 염두해 두길 바라며 당선 후 검토를 통해 타 후보자의 공약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정리=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기호 1번 정 후보자 김규배(물리4)



기호 2번 정 후보자 유영빈(경영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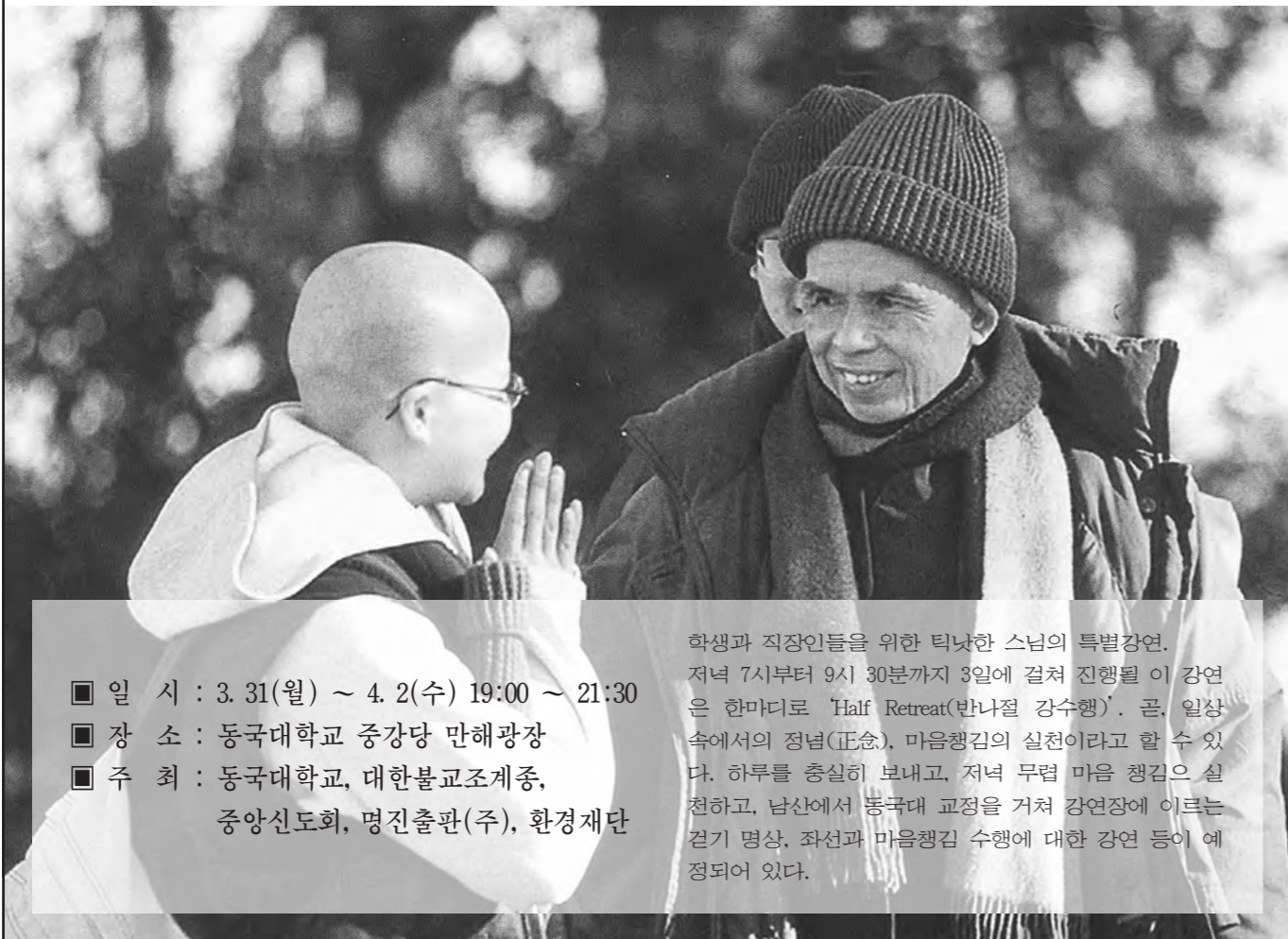


기호 2번 부 후보자 이상현(아간강좌 경영4)

“동대발전위(기호 1번), 등록협(기호 2번) 구성 위해 힘쓸 것”

틱낫한 스님 동국대학교 특별 강연

일상에서의 마음챙김



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틱낫한 스님의 특별강연.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될 이 강연은 한마디로 'Half Retreat(반나절 강수행)'. 곧, 일상 속에서의 정념(正念), 마음챙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저녁 무렵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남산에서 동국대 교정을 거쳐 강연장에 이르는 길기 명상, 좌선과 마음챙김 수행에 대한 강연 등이 예정되어 있다.

- 일 시 : 3. 31(월) ~ 4. 2(수) 19:00 ~ 21:30
- 장 소 : 동국대학교 중강당 만해광장
- 주 최 : 동국대학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명진출판(주), 환경재단

정책 중심 선거로

‘뛰는’ 후보자 위 ‘방관’ 하는 유권자



총학생회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비교

‘함께’ 하는 ‘우리’ 학생회 향해

선거 입후보자들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은 무엇보다 '공약이 어떠한가'를 따져보는 일이다. 이에 이번 총학생회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본다.

▲등록금 관련

상반기 학내 여론이 가장 집중하는 문제는 등록금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두 후보 모두 10% 등록금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호 1번은 "학교가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재책점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고, 기호 2번 역시 "등록금 재책점 협의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시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등록금 책정과 관련, 학교측과 학생 대표간 논의기구가 필요함을 두 후보 모두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기호 2번은 34대 총학생회가 학교측과 합의한 학자합의안 중 하나인 등책협 구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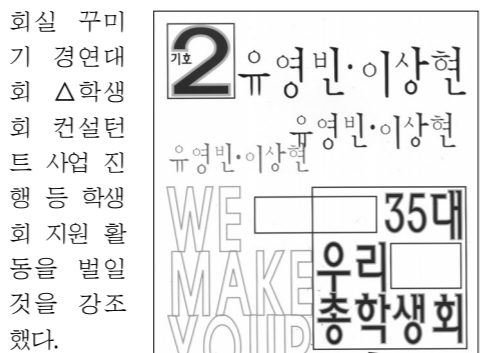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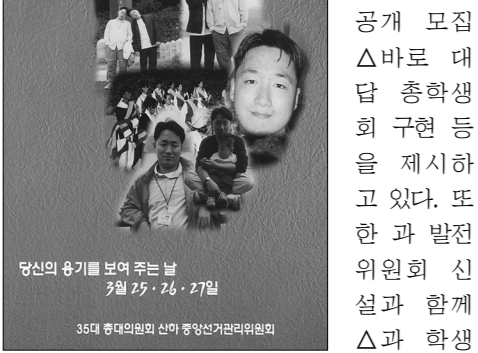
반면, 기호 1번은 등록금 문제만이 아닌 공강, 학사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동국발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또한 등록금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등록금 책정 공청회 개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생 참여

기호 1번의 '바꿀 수 있는 용기 함께해요'와 기호 2번의 '12950의 100% 교강, 우리 동국 우리 학생회'의 모토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회 대중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공통적으로 엿보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호 2번은 동국대 학생 온라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구현과 '우리 과 발전위원회(가칭)'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아나바다 운동 △물물 교환 장터 마련 △학생회 간부 공개 모집 △바로 대답 총학생회 구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 발전위원회 신설과 함께 △과 학생



회실 꾸미기 경연대회 △학생회 컨설턴트 사업 진행 등 학생회 지원 활동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야외 카페, 상설 공연장 마당 마련 등을 통한 학내문화 활성화와 공약도 내놓았다. 한편, 기호 1번은 한층된 탈피를 통한 조직운영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조직운영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학생회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백지 안전지'를 제시했다. 또한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설하고 있다.

▲교육 여건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과 불만은 열악한 교육 여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사제도, 수업환경, 도서관, 장학금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후보자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기호 1번은 △중앙교과과정위원회의 부활, 실질 강의평가제와 강좌 모니터 요원제도, 강의백서 발간 등을 통한 교과과정 개선 △취업지원팀 신설·인원의 확충, 토익강사 초청 특강, 무료 모의 토익 실시 등을 통한 취업도움 활동 △새내기 기초 능력 테스트, CEO 초청 강연, 전공 필수제 부활 통한 '이공계 살리기' 실현 △가사장학금 확대, 등록금 인상과 비교하는 장학금 지급 통한 수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호 2번은 △전공예약제 50% 확대 실시와 학과제도로의 단계적 전환 △학생포기제 실시 △강연·특강 사업, 온라인 실질 강의평가제, 의견 수렴 통한 교양강좌 개설, 수업환경 개선 특화기구 구성 등 '좋은 수업 만들기' △통풍기·방음 유리 설치 등 도서관 환경 개선, 옐로우 카드 캠페인, 소극장 영화제 개최 등 '좋은 도서관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안녕하세요! 기호 0번 아무개입니다! 이번 번 읽어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자기소개에 한창이다. 학생들은 잠시 어리둥절해 하지만 유인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학생회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임을 눈치채자 유인물을 자세히 살펴본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동약은 요즘 선거분위기로 가득하다. 화장실을 비롯한 건물 곳곳에서 각 후보에 대한 홍보물을 볼 수 있으며 수업시작 전이면 후보자들이 강당에서 유세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를 하는 당사자인 학생들은 학생회에도, 선거에도 관심이 없는 눈치다.

경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총학생회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2번 후보는 각각 '바꿀 수 있는 용기 함께해요' '우리 35대 총학생회'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호 1번은 각 건물과 강의실에 있는 유권자의 마음을 '점령'하겠다는 목표로 선거운동에 열중하고 있으며, 기호 2번은 '미디어선거'라는 기치로 인터넷 카페에 띄운 홍보 동영상물을 이용한 운동에 한창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새학기가 시작한 후 채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진행돼 각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이정훈(화공4) 기호 1번 선거운동본부 위원장은 "3월에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신입생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힘들어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두 개 단위의 선거만이 이뤄져 학생들의 관심이 적은 것도 이들

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다.

이러한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18일 팔정도에서 열린 총학생회 후보자 합동유세는 전체 유권자의 1%도 안되는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같은 시간에 진행된 몇몇 단과대 학생회의 피켓시위로 유세장으로 향해 있던 유권자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에피소드가 발생해 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완(국공4)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 위원장은 "지난 34대 총학생회에 비해 합동유세와 토론회가 부족하고, 학생들의 참가도 미비해 아쉽다"고 말했다.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매년 선거때면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방향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 학생들은 학생회 선거나 학생회에 큰 관심이 없는 현실이다. 학생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 역시 무조건적인 무관심에서 벗어나 학생회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제16대 예술대 학생회 보궐선거 후보자 인터뷰

“학생 ‘입맛’ 맞는 학생회 만들 것”



2003학년도 예술대 학생회 보궐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기환(연극4) 군을 만나 출마동기와 공약에 대해 들어 보았다.

-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게된 동기는,

= 어떠한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예술대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를 만들고 싶었다. 80년대에는 80년대의 방법이 있었듯이 2003년에는 2003년에 맞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생회장에 당선된다면 현재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제15대 예술대 학생회에 대해 평가한다면, = 지난해 예술대 학생회는 일반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전체적인 학생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몇몇 집행부가 투쟁적인 방향으로 학생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이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조직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견이 다른 부

분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합일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전체적으로 예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에 중점을 뒀다. 학생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학생들이 불편한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단 매년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실습비가 동결되는 상황을 해결할 예정이다. 학교측과의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실습비를 인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과의 특성상 야간작업이 잦은 미술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작업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밖에도 예술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림식당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명단

기간 : 2002. 12. 21 ~ 2003. 3. 16

발전기금

- △2천만원 남요원(동문)
- △1백만원 교영섭(불교학과 교수)
- △20만원 서정욱(의과대학 교수)
- △1만원 백승대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

- △2천2백만원 정형식(일양약품 명예회장)
- △2천만원 한국RF
- △7백80만원 행정대학원생일동
- △5백만원 일현스님
- △3백만원 이상호(교육대학원)
- △2백만원 정우택(미술사학과 교수), 지창규(불교학과 교수), 회학스님(말해사 주지)
- △1백20만6천98원 ARS입금액
- △1백14만원 윤현보(부총장)
- △1백8만원 김나형(교직원), 박태경(교직원), 조성환(교직원), 최성경(교직원)
- △1백만원 각진스님(광복사), 강택구(신도), 권필현(신도), 길영전(신도), 김광일(신도),

- 김래원(신도), 김중겸(신도), 김인자(신도), 김준범(신도), 김준아(신도), 김충봉(신도), 김현미(신도), 나혜리(신도), 박영순(동문), 손성(법학과 교수), 신성현(불교학과 교수), 전동기(신도), 종목스님(화성사 주지), 태성금숙(동문), 홍기익(동문)

- △60만원 김종철(교직원)
- △50만원 김성태(학부모), 문분행(신도), 보현스님(대원사), 안대승(신도), 이상민(교직원), 이승문(신도), 허보현성(신도)
- △30만원 문현주(신도), 성현, 장영자(신도), 황주환(교직원)
- △20만원 구옥희(신도), 김형석(신도), 명성여중동문화, 불교텔레비전, 이재우(신도), 조월생(신도), 익명2명
- △15만원 봉선희, 한진순(신도)
- △13만원 황귀동
- △10만원 김귀옥(신도), 김길호(신도), 김양원, 김운자(신도), 김해문화(신도), 박승효(동문), 상명스님(불교대학원), 서승열(신도), 심령란, 오익환(신도), 우선이(동

- 문), 윤대성(신도), 윤태희(신도), 이건영(신도), 이상훈(신도), 이정화(신도), 이진석(신도), 이숙옥(신도), 이철은(동문), 임종남(신도), 정혜련(동문), 조남욱, 최연등(신도), 현암스님(무량사 주지), 흥국사, 익명1명
- △1만원 강대순(신도), 강진석(신도), 계동수(신도), 김석배(신도), 김용자(신도), 김재현(신도), 김종훈(신도), 김지현(신도), 김진읍(신도), 김태욱(신도), 김학곤(신도), 남기철(신도), 노재훈(신도), 박순례(신도), 박용숙(신도), 배연철(신도), 비로암, 서석전(신도), 성윤진(신도), 성윤희(신도), 성행웅(신도), 손귀영(신도), 송정례(신도), 오기철(신도), 오세현(신도), 오애령(신도), 우정(신도), 우철순(신도), 육성자(신도), 이관재(신도), 이순옥(신도), 이완의, 임선화(신도), 장민숙(신도), 전수련(신도), 조병철(신도), 조병호(신도), 조순이(신도), 천경순(신도), 최강렬(신도), 최상선(신도), 최은미(신도), 한상원(신도), 한정자(신도), 황배영(신도), 익명 4명
- △5천원 민건옥(신도), 이정자(신도), 진건옥(신도), 익명1명

- (신도), 김청심행, 김태일(무량사 스님), 박수현(신도), 백승대, 서영근(신도), 안순남(신도), 오근석, 옥천사(신도), 옥대일(동문), 이순옥(신도), 이철은(동문), 임종남(신도), 정혜련(동문), 조남욱, 최연등(신도), 현암스님(무량사 주지), 흥국사, 익명1명
- △1만원 강대순(신도), 강진석(신도), 계동수(신도), 김석배(신도), 김용자(신도), 김재현(신도), 김종훈(신도), 김지현(신도), 김진읍(신도), 김태욱(신도), 김학곤(신도), 남기철(신도), 노재훈(신도), 박순례(신도), 박용숙(신도), 배연철(신도), 비로암, 서석전(신도), 성윤진(신도), 성윤희(신도), 성행웅(신도), 손귀영(신도), 송정례(신도), 오기철(신도), 오세현(신도), 오애령(신도), 우정(신도), 우철순(신도), 육성자(신도), 이관재(신도), 이순옥(신도), 이완의, 임선화(신도), 장민숙(신도), 전수련(신도), 조병철(신도), 조병호(신도), 조순이(신도), 천경순(신도), 최강렬(신도), 최상선(신도), 최은미(신도), 한상원(신도), 한정자(신도), 황배영(신도), 익명 4명
- △5천원 민건옥(신도), 이정자(신도), 진건옥(신도), 익명1명

장학기금

- △2억5천만원 생활협동조합
- △1천1백만원 장곡수
- △8백만원 최병석(영상정보통신대학원 교수)
- △6백만원 정준현(영상정보통신대학원 교수)
- △5백만원 김영관입학원
- △1백25만원 익명

특정목적기금

- △1천8백70만원 경주교수작품전시회수익금
- △1천만원 이봉춘(불교학과 교수)
- △2백90만원 범문사
- △2백32만1천500원 오메가메디컬
- △2백12만2천820원 탐대티덕
- △50만원 진원스님(대학원)
- △30만원 성광스님(전법사), 이철은(동문)
- △10만원 김중해
- △4만4천760원 김새한(동문)

단위기금

△8천만원 피아이버코리아

동국사랑저금통기금

- △4만1천180원 황우열(학생선발실장)
- △2만7천150원 백경임(가정교육과 교수)
- △2만1천450원 김홍모(교직원)
- △1만1천450원 정병관(교직원)

기금접수 ARS 안내

060-700-0119

- 금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 (1일 중복되는 것은 1회만 인정)
- 문의처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02)2260-3300, 2260-3791~5

소나기

2003 학생회 보궐선거, 이렇게 치르자



- △꼭! 투표합시다.
- △투표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권리 위에 잡자지 말고 의무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참여로 만들어 갑시다!
- △알았습시다.
- △선거운동 한다고 도서관 앞에서 악쓰지 말자! 시끄럽다!!
- △동약의 일꾼을 뽑는 자리이다.
-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공부고 미래고 바쁜 시간을 지내야 하겠지만 보다 힘차고 좋은 환경과 앞으로 발전적인 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야 했다!
- △나 같은 일반 학생들도 경솔하게 반성하고 선거 잘 했으면 좋겠다.
- 서로 잘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하게 할까 얘기하면서 좀 더 발전된 동국을 만들었으면 한다. 동국대 화이팅!!
- △잘, 열심히, 멋지게, 공정하게, 비리없이!!
- △선거에 참여합시다!
- △진정한 학생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소신껏 뽑자!!
- △투명하고 공정하게!!
- △의외의 있게 치르자!
- △투표권 포기는 용기가 아니라 기권일 뿐이다.
- △투표하지 않은 자 나중에 학생회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비판할 자격 없다.
- △재대로 된 정책검증 거치자.
- △깨끗한 선거, 참여하고 싶은 선거로
- △인하고 후회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자.
- △투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
- △투표하지 않은 자 권리에 대해 논하지 마라.
- △끼리끼리 하지 말고 모두 함께 합시다.
- △적어도 투표는 해야지
- △진지하게 투표하자.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770-2058
 FAX : (054)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교육시장’이 개방되어 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될까. 일부에서는 막연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멀리 외국에 안 나가고도 국내에서 외국학교를 다닐 수 있고 말이다. 지극히 낯선 국내 교육의 문제점들을 피하여 외국 학교의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다니 반갑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런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학교들은 학원으로 변질되고, 등록금 경쟁에 따른 학비부담이 가중되며, 저질의 상업적 학교들이 난립하여 ‘간판장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사기’에 해당하는 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뜰이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국내학교들이 외국학교들의 불공정한 경쟁 앞에서 더욱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 자립적인 국가교육발전의 고삐를 놓고, 초국적 자본의 네트워크에 ‘체인잡’처럼 흡수되어 세계교육상인들의 거래와 판매전략에 따라 교육이 좌우될 수 있다. 그렇게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육주권이 침해되고, 교육이 상품화되어 정체성을 상실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정신이 황폐화되는 것이다.

일주일 남은 양허안 제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학생들의 책가방과 지갑을 시장 좌판대에 올려놓고 흥정을 벌이고 있



논단

주 경 복

건국대 교수·사립대학교수협의회장

교육개방 ‘교육적으로’

다. ‘교육시장’을 GATS(서비스무역일반협정)의 대상에 포함시켜 각 나라가 서로 이익 많이 남는 ‘교육상품’을 차지하려고 흥정의 줄다리기를 시작하였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서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무역 협상에 관한 일정을 정하였는데, 이를 이른바 ‘도하개발어젠다’(DDA)라고 부른다.

이에 따르면 2002년 6월 30일까지 각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요구할 사항들(양허요구안)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그런 요구를 받은 나라에서 요구한 나라에게 허락할 사항들(양허안)을

제출한 뒤에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서 2005년 1월 1일 전까지 모든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대대적으로 세계교육시장을 재편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요구를 접수하였고, 또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의 요구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3월 30일까지는 상대국에 내줄 양허내용을 제출하기 직전에 있다.

이후로 상대국들 사이에 요구한 내용과 허락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잡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많고,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우리나라는 세계교육 시장 가운데서도 노른자위 가운데 하나로 주목되어 뜨거운 흥정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에 교육부는 다른 나라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조건들을 앞질러 제시하며 교육개방을 서둘러 대다가 교육관련 단체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경제자유지역을 시작으로 외국학교를 유치하여 국내학교에는 허용하지 않는 특혜를 베풀며 교육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올바른 ‘개방’을 위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선의로서 교류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방’은 물론 나쁜 것이 아니며, 황실화될수록 좋은 일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방의 흐름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교육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각 나라의 정체성에 따른 고유한 조건 속에서 ‘교육적으로’ 개방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대책없는 성급한 개방정책을 유보하고,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주체들의 의견 있는 참여도 요구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학생들이다.

인물기

신 하 나 (국제4)

한맥문학상 희곡부문 신인상 수상자

“우연히 만난 연극에 푹 빠졌어요”



창작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떠오르지 않아 좌절도 많이 겪었다는 그는 “‘한국 희극 워크숍’에 참가했을 때 원로 작가분들이 힘들었던 경험을 말씀해주신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신 양은 무대 위에서 인생의 참모습을 표현하는 연극이 점점 외면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는 공연장을 많이 건립해 공연환경을 개선하고 연극계는 써커스와 연극을 조화시킨 ‘텔리구아다’ 공연처럼 독창적인 공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극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관객들의 발길을 다시 대학로로 돌리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그는 요즘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아버지로 인해 가정이 깨지는 모습을 그리는 이번 작품(이름)은 어려울 때는 마냥 커보이거만 했던 그의 아버지가 웬지 작아보이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더 나은 희극창작을 위해 연기도 병행하고 싶다는 신하나 양. “배우의 입장을 이해하면 그동안 느끼지 못한 새로운 발상을 떠올릴 것 같아요” 국제사회와 문화를 연구한 만큼 세계 공통적인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만의 연극이 국내·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국제학 전공과 문예창작 능력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월간문예지 ‘한맥문학’ 공모전에서 희곡부문 신인상을 수상한 국제학 전공 학생이 있다. 얼마전 막을 내린 제2회 비포장연극제 공연작인 ‘존경하는 엘레나 세르게예브나’의 각색까지 맡은 신하나(국제4) 양이 그 주인공이다.

국제학 전공 학생이 희곡을 쓴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는 연극이 좋아서 연극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연극매니아’다.

2학년 때 우연히 ‘대한민국 기호 0번 김철식’이라는 공연을 본 후 연극에 매력을 느껴 복수전공을 하게 되었다는 신 양은 “카메라의 시선을 따라 봐야하는 영화와 달리 연극은 내 시선대로 주목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공과 전혀 다른 활동이고 연극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가 많았다. 또한

작지만 소중한 참여, 투표부터 시작하자

지난 11월, 투표를 미달로 인한 총학생회 선거의 무산. 그리고 이후의 적지 않은 혼란과 무기력.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2003년 동약의 서글픈 자화상이라면 과장일까. 연제과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절감한 적이 있던가. 아니다. 총학생회는 언제부턴가 그들만의 공간이었고, 나는 총학생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관심 없다. 과연 그런가.

핸드폰 무료 충전기, 강의실 책걸상 교체, 실습 기자재 구매, 사위실 설치, 도서관 문제, 영화제, 야식판매 등 결코 적지 않은 우리의 일상이 총학생회를 거쳐가고 있다. 신입 총장님도 인정한 열악한 재정상황을 가장 먼저 제기한 곳도 다름 아닌

총학생회였다.

물론 그간 보여온 여러 부족함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폐쇄적인 운영, 상투적인 사업 등은 그 중에도 핵심이다. 하지만 잠시 돌아보자. 우리는 언제부턴가 청천에 인색하고 욕하는 데에 익숙해져버리지 않았던가. 아니 이제는 다만 무관심이 커져가는 듯 하다.

두 팀이 나서서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도 분위기는 뜸 줄을 모른다. 또 욕하고 말 것인가. 열심히 안해서 그렇다고. 욕은 많이도 했다. 무관심도 깊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만들어가자. 작지만 소중한 참여, 투표로부터 시작하자.

정기훈 (경영대 정보관리4)

학교측의 실질적 취업지원 이뤄져야

대학들의 인지도 순위가 공공연히 언론에 등장할 즈음이면, 동국대 학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입학시에 익히 들어오고, 조사해보던 상황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기업들에게 동국대는 점차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 교학단 선배들이 취업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또한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모든 사회가 그러하듯, 이전부터 구성되어오던 ‘서열’이란 계급의식이 대학사이에서, 기업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요즘의 대학 인지도에서 최근 들어 급격하게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취업이다. 취업, 좋은 기업으로 많이 되는 학교가 좋은 곳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아직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 동국대는 내가 입학한 97년부터 보던데 취업에 대해 거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학교는 상당히 애썼다고

말하겠으나, 학생의 입장에서 선배를 통하거나 몸소 느껴진 바가 거의 없다.

학교는 당연 재정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입학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 단기적으로 학교에 이익이 돌아올 것 같지 않은 학생들의 취업에는 너무 소극적이다.

현재 학생자치기구 졸업준비위원회와 학내부서 취업지원팀이 동국대생들의 취업상의 편의에 관한 부분을 맡고 있다. 학교는 학교의 입장에서 타부서 보다는 취업관련 부서의 인원 증원과 재정 지원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행 유지 성격의 답답한 행정보다는, 진취적인 프로젝트 사업인 취업 분야에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곳을 우선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실리를 주어, 학교가 실추된 신용을 찾아가는 쉬운 길 중에 하나임을 알았으면 한다.

현재형 (공과대 토목4)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등록금 문제·이라크전 관련기사 시의 적절

학내에서 등록금 인상 문제, 학외에서는 대(對) 이라크 전쟁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60호 동대신문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적절한 시기에 기사화해 더욱 알차 보였다.

등록금이 10%(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등록금이 인상되었는지, 인상분은 어느 용도로 쓰일 것인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문을 통하여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당장 가지 아쉬운 것은 등록금 인상 문제를 다루는 기사가 신문 일면에서 다루어지거나 안내되었다면 더욱 주의 집중을 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등록금 문제 못지 않게 최근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라크 전쟁이 종료된 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이목이 북한에 고정될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호에서 두 교수님의 글과 준비한 기사를 바탕으로 반미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었다.

전쟁을 포함한 물리적 폭력의 부재 상태를 평화라고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폭력, 차질 물리적 폭력 문제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곳에서 자행되는 폭력은 간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책을 소개해 줌으로써 형식적인 책 소개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았다.

정진희(사과대 신병2)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김인영.~♡ 생일 축하해. -민형, 호정
 △佛 성민아 생일 축하했어. -이쁜 누나들
 △현목아 생일 축하해. -보람, 들레
 △소모인 '동국관' 시작합니다. 함께 하는 새내기들 정말 축하해요~♡ -백민원
 △축구동아리 토로 신입회원 가입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ToTo 전회장
 △국교과 사회부, 번성기에 들어온 새내기들 환영한다! -99 진숙
 △은영아 생일 축하해. -영건
 △희종이 형 벌써 일년 된 결혼 축하 드려요.
 △25일 준수형 생일 축하해요. -Elastine
 △오을 (3/19) 이쁜 명선이 생일이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불교대 풍물 굿 때 이판사판 친구들 풍물학교 수고했어요 ^^
 △졸업하신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족통동 피켓시위 날!! 학교에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한 당당한 동국인!!
 △'우리학생회' 식구들 수고하셨습니다. -2
 △도서관 새로운 시스템 만드신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어느 학생
 △공대생들 인원은 많은데 힘이 없다. O O대가 일산으로 가라.
 △Fearless Dawn & Ajax 홍보공연 추운 날씨에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본 불교 스터디 친구들 스터디 열심히 합니다.
 △단풍엔 첫 연습!! 열심히 합니다.
 △정원아~공부 열심히 해♡ -pyo
 △여학우들에게 인기 많은 경제학과 강종근아! 나 소개팅 좀 시켜줘!!;
 △기계공학과 파이팅입니다!! 편입하신 분들도 환영해요.
 △열정적인 공부 열심히 해♡ -표
 △열심히 공부하세요.. -DSK

그리고...

△부시 재수없어!!
 △불교대 02, 03 MT 재밌게 갔다와.
 △말매누 맛있게 해주세요.
 △도서관 1층 컴퓨터 차례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프린터도 돌려주세요.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3/24)	쇠고기국밥 (1500) 두부김치 (1500) 콩나물비빔밥 (1500)	쇠고기당면탕 (1500) 제육콩나물볶음 (1500) 떡갈풍기 (1300)	버섯전골 (3200) 카레라이스 (3000)
화(3/25)	사골곰탕 (1500) 참치볶음밥 (1300) 제육볶음 (1500)	짬뽕국밥 (1500) 치킨볶음밥 (1500) 마파두부덮밥 (1500)	순두부찌개 (3000) 아구찜 (3500)
수(3/26)	쇠고기무국백반 (1500) 닭이채조림 (1500) 미트볼덮밥 (1500)	케이준해물볶음 (1500) noch순살돈가스 (1500) 열무비빔밥 (1500)	해물볶음밥 (3000) 생선조림백반 (3200)
목(3/27)	부대찌개 (1500) 불고기 (1500) 오징어가스 (1500)	근대국백반 (1500) 소고기해쉬라이스 (1500) 감자수제비 (1300)	불낙전골 (3200) 한치회덮밥 (3200)
금(3/28)	장조림백반 (1500) 잡채밥 (1500) 회덮밥 (1500)	양지탕 (1500) 양송이볶음밥 (1500) 닭도리탕 (1500)	영양솥밥 (3200) 골뱅이소면무침 (3200)

문화인이 말하는 나의 하루

“벽화로 문화 봉사활동 해요”



김 경 란
국민대 조소 3

대학연합 벽화 동호회 '담쟁이'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는 붓으로 문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고아원 같은 사회복지기관부터 길거리 벽까지 우리의 붓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름다움과 따뜻한 마음이 묻어났다.

- #1. 기초 작업
썩썩~ 썩썩~ 벽 긁는 소리다. 이 낡은 벽에 산뜻한 붓을 새겨 넣으려면 이전에 지지부진 것들을 먼저 모두 긁어내고 그 위에 새 밑칠을 해야한다. 그렇게 100M 남짓되는 벽들은 화장으로 치면 세수를 하고 기초화장을 마친다.
- #2. 밑그림 그리기
여기저기 분주하지만 계획적이고 기대로 꽉찬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고 간다. 도안팀들은 그 벽 분위기에 맞게 컨셉을 정하여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한쪽에서는 벽에 칠할 색들을 만들고 있다. 몇개 되지 않는 기본적인 페인트 색으로 여러 다양한 색을 만드는 재미도 솔솔하다.
- #3. 색 입히기
도안팀의 밑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여기저기서 종이컵에 조금씩 따라놓은 물감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림 그리기 때 그들의 모습은 모두 노숙자 패션으로 바뀐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것은 후안을 위함이다. 깨끗한 옷 몇 벌을 버린 찢어지는 맘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 #4. 기록하기
그러한 노숙자 패션으로 우리는 기록팀의 디지털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 세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정말 괴롭지만 어쩔라. 나중에 보면 다 추억이다. 그래서 즐겁다. 벽에 색감맞이 거의 입혀질 때쯤이면 나와 벽 그 일대일 관계에 머무르던 나의 눈이 그제서야 주변을 의심하게 된다. 여기 저기 색감발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어느 발 밑은 페인트값을 물감으로 착각한 누군가의 실수가 보인다.

뜻을 함께한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며 오고간 그 발자국들. 여제보물 그 과정들이 한결하게 모아내어 그린 벽화들보다 더 아름다운 흔적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문화개방, 그 문을 열 수 없는 진짜 이유

WTO 통한 개방 문화정책성 훼손 ... 정부도 문화다양성 중시하는 국제 흐름 동참해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지난 2월 중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WTO DDA(도하개발의제) 양허안 제출 때 시청각서비스(영화, 방송, 음반)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DDA는 2001년 11월에 시작된 새로운 무역라운드의 명칭이다. DDA에서는 문화까지도 서비스 상품으로 취급하여 협상대상으로 놓고 있다. DDA의 서비스 분야 협상일정을 보면 작년 6월 말에 양허요청안(다른나라에 대한 개방요구안) 제출시한이었고, 올 3월 말에 양허안(자국의 개방계획안)의 제출 시한으로 되어있다. 이 양허요청안과 양허안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DDA는 2004년 말에 마무리된다. DDA는 문화개방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개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이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대응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캐나다와 EU와 같이 문화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무역협정에서는 문화개방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요구받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가고 있다.

이번 DDA 협상과정에서도 캐나다, EU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원칙을 지켜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문화를 무역협정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기 위해 국제법적 강제력을 지니는 '문화협약'의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무역협정이 문화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 인류문화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미디어기업이 생산한 문화상품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정책성과 인류의 문화다양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문화협약은 각국의 문화정책과 진정한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약이다.

국제사회는 DDA가 마무리되는 2005년 이전에 문화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근 프랑스 파리에

서 열렸던 문화전문가단체회의에서 유네스코를 통한 문화협약 체결을 결의한 바 있다. 유명무실한 기구였던 유네스코를 강화해 WTO에 맞서는 문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각국 정부와 문화 NGO들은 자유무역의 질서가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이상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양허안에서 시청각서비스를 제외하겠다고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단순히 시장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문화가 무역협정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새롭게 세웠다는 의미를 갖는다. 문화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문화정책의 출발점은 무역협정에 대한 이러한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처음부터 이러한 입장을 견지했던 것은 아니다. 작년 6월말 양허요청안 제출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다른 나라들에 적극적으로 문화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이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투쟁이 있었기에 정부의 정책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정부는 시청각서비스뿐 아니라 문화의 전분야를 무역협정의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무역협상은 이번 DDA 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BIT(쌍무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등 다양한 무역협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무역협정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확고한 원칙이 공식화되었을 때 자유무역의 위협에서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유네스코를 통한 문화협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유무역 질서에 맞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공존과 교류라는 문화본연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으며, 우리 문화의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정책이 문화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진정한 문화정책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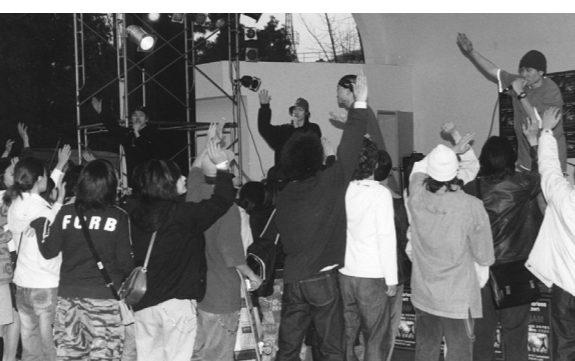


최영제
스크립터문화연대 정책홍보팀장

에이젝스(AJAX)·피어리스 던(Fearless Dawn) 합동 홍보공연

다른 빛깔의 힙합과 락, 따로 또 같이

동아리 위기 해소 위해 함께 공연 ... 학내 새 공연 문화 마련한 계기



지난 19일 만해광장에서 열린 합동 홍보공연.
만악 '라디오헤드'와 '에미넴'이 한 무대에 선다면 어떨까. 그들의 명성에 따라 어떠한 공연장

에 몇 명의 관객이 모이는가에도 귀추가 주목되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관심사는 락과 힙합이 어떤 빛깔을 내며 조우를 이루는지가 아닐까.

힙합 동아리 에이젝스(AJAX)와 락 동아리 피어리스 던(Fearless Dawn)이 첫 번째 합동 홍보공연을 지난 19일 만해광장에서 진행했다. 새 학기를 맞아 점점 심각해지는 동아리 위기 문제의 해소 방법으로 합동공연을 마련한 것이다.

이 날 공연은 에이젝스의 '자유' 희망 등 순수창작 락과 피어리스 던 여성밴드 '아웃크라이'와 메인밴드 '가오리'의 락 공연이 번갈아가며 진행됐고, 조인트 공연도 이어졌다.

그리고 피어리스 던 출신의 보컬과 에이젝스의 랩퍼가 활동중인 언더밴드 '아수라(ASURA)'의 특별공연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동아리 홍보 공연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총학생회가 서지 못하면서 학내 공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입생들이 캠퍼스의 공연 문화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시점에 또 하나의 '공연문화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에이젝스 회장 김명성(경영2)군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는 대표적인 두 장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학생들을 공연장으로 불러모으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가지 안타까운 모습도 보였다. 진행 요원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농구를 계속하는 학생들로 인해 시작이 늦어졌고, 객석이 빌도로 마련돼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뒤편 계단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또한 추운 날씨 탓에 관객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자리 이동이 많았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피어리스 던 회장 정희원(사과대 2)군은 "활성화된 학내 공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연주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가슴에 통나뭇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한 신입생의 따듯한 말처럼 앞으로 학내 공연이 더욱 활성화되어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학내 공연문화의 새로운 물꼬를 튼 이번 합동공연이 그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두 동아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학교측의 학내 공연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수강과목 취소 안내

2003-1학기 수강신청장화에 대한 취소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신청기간 : 2003. 3.27(목) ~ 28(금), 2일간
2. 장 소 : 소속대학 교학과, 야간강좌 교학과
3. 수강과목 취소 처리 절차
가. 교학과에서 취소신청서 교부
나. 학업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와 상담(승인포함)
다. 소속대학 교학과에 취소신청서 접수
4. 유의사항
가. 수강과목을 취소한 자는 다른 과목 신청이 불가함
나. 수강신청 취소후 수강신청확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취소가 불가함
※ 4학년(1, 2학기) 학생은 3학점 초과과목 취소가능(학년기준)
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신청확점이 아닌 취득학점이므로 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라. 졸업시 3.4학년 전문교육과목에서 제1전공 및 제2,3전공의 전공 최저 이수학점 1/2 이상 취득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취소신청 하기 바람
- 마. 취소과목은 해당학기만 성적통지표에 표기(W)

교 무 처

헌혈 봉사활동 참가안내

1998년 이후부터 경기 서북부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말라리아(해질) 등의 요인으로 이 지역 군장병들의 헌혈참여가 전면 유보되고 있어 혈액이 너무도 부족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과 RCY헌혈봉사회에서는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생명의 사랑을 나누고, 혈장수입에 쓰이는 외화를 줄이기 위한 「사랑선 헌혈」운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동국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03. 3. 24(월) ~ 3. 25(화) 09:00-17:00
▶장소 도서관 앞

※ 헌혈하신분들에게는 건강증진과 성인병 예방의 일환으로 혈액으로 검진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본인에게 15일 내로 개별 통보하여 드리며, 수혈이 필요할 경우 헌혈봉사회에 연락주시면 즉시 헌혈증서를 드립니다.

■ 검사내용 : - B형, C형 간염항체검사
- 간기능 검사
- 요소질소검사
- 콜레스테롤검사
- 총단백질 및 알부민 검사

※참고사항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는 2003학년도 봄학기(3월)부터 헌혈봉사자에게 아래와 같이 봉사활동시간을 인정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헌혈 1회당 : 봉사활동 10시간 인정
(단, 사회봉사학점 이수 시간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연중 교내 헌혈캠페인 일정 : 3월, 5월, 9월, 11월중

동국참사람봉사단 · RCY헌혈봉사회

이동병무상담실 개설 운영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새롭게 바뀐 병역제도와 병역 전반에 대하여 직접(대면) 상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동국대학교 재학생인 군미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기 간 : 2003. 3. 26 ~ 27(2일간) 10시~16시까지
2. 장 소 : 신관도서관 입구
3. 상담원 : 병무청 공보실 직원

총 무 처

교양수학 개인교습실 (Tutoring session) 운영

이과대학 수학과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양수학교과목인 일반수학, 수학기초, 응용수학 등에 대하여 개인교습실(Tutoring session)을 3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운영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장소 명진관 세미나실 (A402)
▶일시 월 15:00 ~ 16:30
화 15:00 ~ 16:30
목 15:00 ~ 16:30

이과대학 수학과

매체비평

라디오 편

라디오21

“참신한 시각과 다양성으로
대안언론 입지 굳혀”



천편일률적인 거대방송사의 라디오에 반기를 든 인터넷 라디오 방송 '라디오21'.

21일 '라디오21'이 개국한 지 한 달이 됐다. '라디오21의 오마이뉴스'라고 불리는 학과공부에 치중하는 것이 요즘의 경향인 것이다.

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라디오21은 노무현 라디오를 그 모체로 하고 있다. 그들이 지원했던 노무현이 정처권의 전형적인 비주류로 사회질서의 재편을 꿈꾼다면, 라디오21은 방송이 갖는 대중적 영향력을 통해 사실상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성숙을 앞당기고, 극소수가 독점해왔던 사회적 특권의 분산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대 방송들의 천편일률적인 시각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이다. 동성애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담론형성에 적극적인 점이나, 우리 사회 진보의 밑거름이 되어 온 운동권에 올바른 역사적 위치를 찾아 주려는 노력이 그러하다. 또한 시사현안들

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기존매체들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허용한다거나, 다양한 컨텐트들을 통해 청취자들의 문화적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들 또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오마이뉴스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힘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참신한 시각으로 사회적 현안들에 접근하려는 노력은 자못 신선하다. 이를 통해 라디오21이 빠른 시간 안에 '대안언론'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동시에, 평등주의를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신생언론에 장밋빛 미래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대 방송에 길들여져온 청취자들의 입맛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이다. 천박한 상업주의의 침범노릇을 하고 있는 거대 방송사들은 시·청취자들의 기호를 자극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들에 포섭된 대중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선 다양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라디오21의 정체성만을 확인할 수 있을뿐, 이것을 청취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라디오21의 출범근거인 인터넷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이 신생언론의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는 문자로 된 텍스트 생산에 역점을 뒀으며, 써 광범위한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음성을 매개로 한 라디오방송의 특성상 라디오21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연 청취자들의 반응도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부족한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인터넷을 통해 듣는 라디오인 만큼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라디오21의 출범으로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색다른 목소리를 갖게 됐다. 이것이 대안언론의 또 다른 신화를 일구어낼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듯하다. 다만 라디오21이 대안언론의 건강성을 살려 우리 사회의 타성을 깨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항해를 시작한 만큼 초보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한성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 교육팀장

문화생활, 즐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개인주의 성향이 심해지고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요즘 대학생들의 모습은 대학문화 향유를 중요시했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함께 어울리는 문화보다는 혼자 즐기는 문화, 문화생활보다는 취업을 위한 학과공부에 치중하는 것이 요즘의 경향인 것이다. 이에 본지는 이러한 현상을 짚어보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중 문화생활의 비중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편집자

기와 선배들이 꽤 모이기도 했던 것 같다. 하긴 나와 달리 좀더 적극적인 친구들도 있었다. 교내 록밴드 동아리에 가입해 기타와 드럼을 치기 시작하고, 응원단에 들어가 활기찬 신입생 티를 과파 내던 친구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학생활을 즐겼으니까. 학교 밖 사설 시네마테크라든가 동호회를 들락거리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알찬 문화생활을 꾸리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뎨 그랬지”

참, 또 한 가지. 90년대 후반 들어 서면서부터 교내에선 새로운 '문화행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학교 강당이나 노천극장이 대중가수들이 출연하는 방송사 행사의 '대어쇼'가 된 일이다. 이런 '문화행사'가 한 번씩 열릴 때면 그 동안 어디 있었나 싶었던 학생들과 인근 중고생들까지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던 기억이다. 내 선배 세대,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학번들의 문화생활은 어땠을까. 한 선배의 표현을 빌려보자. “물론 그때도 대중가요도 있었고, 돈 내고 보러 가는 연극·영화도 있었지만, 그게 공통적인 화제가 되긴 힘든 분위기가

있었다. 기억나는 건 술자리와 술자리 끝에 민중가요를 부르던 일이 전부인 것 같다. 그때 지금처럼 통신문화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놀만한 게 어디 있었겠나.”

이렇게 말하는 30대 초반의 선배는 지금 공포영화 인터넷 동호회를 누비는 '열혈 마니아'가 되어 있다. 투자하는 시간이나 능력에 비해보건데, 그는 자신의 이 독특한 취미생활을 일(직업)과 대등한 수준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 문화적 정보와 인프라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척 귀했던 때가 있었나. 그때 대학은 새롭고 의미 있는 문화정보의 주요 창구가 되었다. 그때 학생들이 즐겼던 민중문화 또한 이런 사회 전반의 문화인프라 부족이라는 조건 속에서 어쩌면 문화 자체에 목말라했던 이들에게 갈증을 달래주는(선택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것이었다고 짐작해보기도 한다.

문화홍수시대

지금은 문화 향수의 기회가 넘쳐난다. 그것은 때로 대중문화, 소비문화, 마니아 문화 등 각각의 이름으로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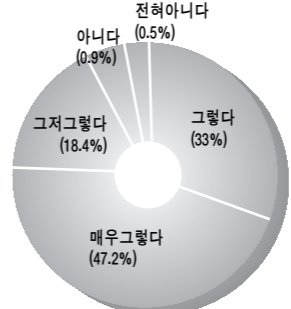
리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의 출현으로 인한 새로운 문화향유 기회의 폭발적 증가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너무 많은 창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온라인의 그 수많은 커뮤니티들은 이미 장소성, 계급성, 나이주의 등 오프라인의 소속감을 일정부분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축제에서, 영화·게임·스포츠·만화 등 각종 소규모 동호회에서, 혹은 내가 속한 정치 모임에서 같은 문화를 즐기고 공유하는 수많은 네트워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대학생들은 대학 안, 혹은 밖에서 충분한 문화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불건전한가, 유흥적인가, 소비지향적인가 하는 얘기는 질문 밖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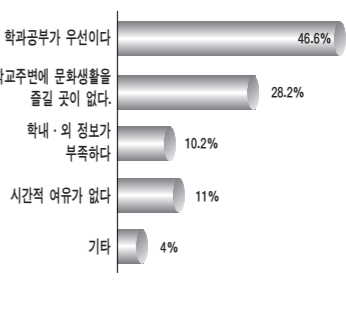
'다름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각각을 바라본다면 대학생의 문화생활지수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 아니 이미 대학 밖에서, 다양한 지평에서, 수많은 커뮤니티를 통해 '즐거움'과 '향유'를 누리고 있다면, 이 사실은 우리의 '문화생활 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최문주
시민의신문 기자·문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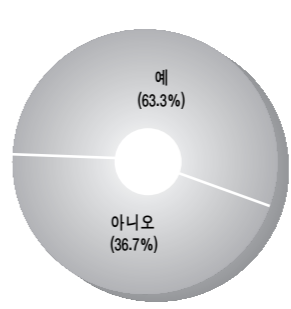
▶자신의 대학생활에 있어 문화생활의 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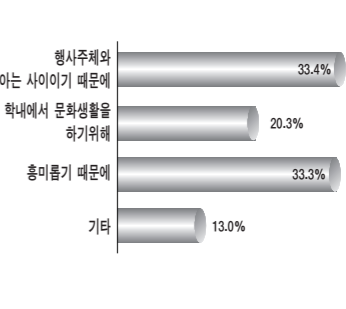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내에서 진행되는 학과·동아리·소모임의 공연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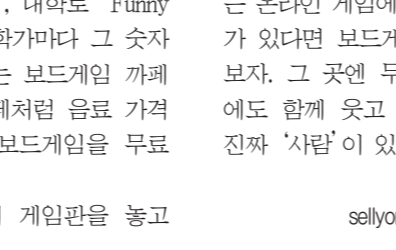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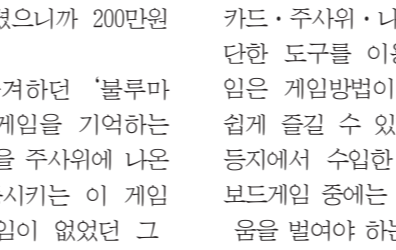
이런 문화생활 어때요?

인터뷰 - 마술사 윤근영(일문2)·윤상혁(광교2) 군



마술을 보는 것에는 익숙한 우리지만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동역의 '데이빗 카퍼필드' 윤근영(일문2), 윤상혁(광교2) 군에게 마술은 생활이다. 본고 마술동아리 'MASIC(마술을 사랑하는 식구들)'에서 활동 중인 이들은 마술계에서는 이미 알아주는 실력자들이다. 유명 호텔의 마술 강사인가 하면 6개 고등학교의 마술 C·A 선생님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들이 학창시절부터 마술을 해온 것은 아니다. "시작이 늦었던만큼 하루 종일 마술 연습에만 몰두했죠"라고 말하는 윤근영 군의 말처럼 피땀 어린 노력이 밑바탕에 있었다. "거창한 도구 없이 주변에 있는 휴지, 종이컵으로도 마술을 선보일 수 있어요." 윤상혁 군은 기존의 마술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안타깝게 여겼다. 또한 마술은 한가지 도구를 이용한 기술을 익히면 수천가지의 마술을 재창조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누구나 연습만 하면 마술을 문화생활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희소성이 높아 '백혈병 어린이 돕기' 같은 사회복지 행사에 참가해 큰 보람을 얻을 수도 있다. "앞으로 학내 정기공연을 통해 마술 대중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는 윤근영 군은 MASIC이 주최하는 '제1회 전국 아마추어 마술대회'가 그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을 '작은' 프로 마술가로 만들어 준 뒤는 문화생활 마술. 이처럼 남들과 다른 문화생활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곳에 가면 - 보드게임 카페



"서울에 걸렸으니까 200만원 내." 어릴 때 즐겨하던 '블루마블'이란 보드게임을 기억하는가. 색색의 말을 주사위에 나온 숫자대로 이동시키는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이 없었던 그 시절 독보적인 '실내 용' 놀이였다. 그런데 요즘 블루마블 같은 판게임, 일명 보드게임이 대학생들에게 인기다. 그 배경에는 대학가에서 신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보드게임 카페' 열풍이 있다. 신촌 '베레베레', 고대 앞 'Rolling', 대학로 'Funny Funny' 등 대학가마다 그 숫자를 늘리고 있는 보드게임 카페는 보통의 카페처럼 음료 가격을 지불하면 보드게임을 무료로 할 수 있다. 테이블 위에 게임판을 놓고 카드·주사위·나무조각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는 보드게임은 게임방법이 쉬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유럽 등지에서 수입한 수백여가지의 보드게임 중에는 고도의 두뇌싸움을 벌여야 하는 게임이 많아 보드게임이 어린 아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무색케 한다. 특히 문명 건설·기업 경영·환타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틀러 오브 카탄' '어과이어' '엘렌랜드'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가상의 캐릭터로 게임을 하는 온라인 게임에 열광을 낸 이들이 있다면 보드게임 카페로 가보자. 그 곳엔 무한한 게임 외에도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진짜 '사담'이 있다. 김하나 기자
selljhona@dongguk.edu

본고 설문조사 분석

생각은 'Yes' 행동은 'No thank you'

98.6% "문화생활 중요" ... 실제 지수는 저조

본사 문화부는 재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동국인의 문화지수'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자신의 생활 중 문화생활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답한 학생 중 1.4%만이 '아니오'라고 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니오'를 꼽은 원인으로는 '학과 공부가 우선이다(46.6%)', '문화생활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11%)' 등의 의견이나 '개인생활을 우선시 하는 요즘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공강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라는 물음에도 '학과 실·동아리방을 이용한다(35.8%)', '도서관 이용(31.2%)'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 달 독서량은 1권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읽지 않는다'라는 답변도 13.8%를 차지했다. 또한 한 달 영화 또는 연극 관람 횟수는 2번(27.5%)이 가장 많아 독서에 비해 영화 또는 연극 관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내에서 진행되는 학과·동아리·소모임의 공연을 보신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3.3%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그 이유가 '행사주체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33.4%)'라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학내 공연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니오'라는 답변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42.5%)', '흥미가 떨어진다(37.5%)' 순으로 대답했다. 또한 '학교 주변에 위치한 국립극장·현대문학관·남산골 한옥마을 등의 문화공간을 이용해보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오(57.34%)'가 우위를 차지했다. 원인으로서는 '있는지 몰랐다(38.4%)', '일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27.2%)', '관심이 없다(26.4%)' 순으로 나타나 학교 주변의 문화 시설·공간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메아리

영웅

▲ 춘추전국시대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대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영웅.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세 자객의 암살 계획을 다룬 영화 '영웅'.

"그의 천하통일을 막으면 백성들은 더욱 큰 도탄에 빠질 뿐이오" ▲ "국익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이라크 전쟁 지지'를 선언했다. 지난 20일 미국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약속받은 대신 이라크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비친 것이다. 실제로 '이라크전 파병안'은 국무회의를 거

쳐 오는 24일 국회통과판을 기다리는 상태다. ▲ 노 대통령의 전쟁지지가 과연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를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무엇보다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낙인찍힌 북한과 '평화번영'을 바라면서,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무기사찰에 순순히 응한 이라크에게 "살상 무기를 감추고 있다"며 미사일을 퍼붓는 것을 지지한다

면, 무기사찰단을 거부한 북한에게는 과연 어떻게 하기를 기대한다 말인가. 노 대통령과 미국 부시대통령이 약속한 '평화적 해결'이 같은 의미일지 의심스럽다. ▲ 영화 '영웅'의 결말은 이렇다. 파국의 '천하통일 합리화'를 전해들은 영웅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결국 나머지 중국대륙을 정복한다. 물론 이 영화에서 파국이 그토록 걱정

하던 '백성'들은 엑스트라에 불과할 뿐 정말 도탄에 '떨' 빠진 것인지 보여주지도 않는다. '민주주의, 인간생명의 존엄성 등의 개념이 희미했던 '중원무림' 세계의 이들을 욕하지는 않으려나.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는 힘 앞에 굴복하며 자유하듯 읊조리는 '평화'를 더는 믿지 않는다. 송윤경 사회부장
itsu@dongguk.edu

동아리·소모임 탐방 - 라틴댄스 동아리 'SSID'

노력으로 일구어낸 화려한 몸짓 즐기는 사람들

격렬한 몸동작과 리듬 관객 사로잡아 ... 학내 축제에 열기 불어넣는 원동력

2003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첫째 날, 조용했던 장충체육관이 갑자기 학생들의 환성과 환호로 가득 찼다. 화려한 의상과 경쾌한 리듬, 그리고 격렬한 몸 동작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그들'이 나타났다. SSID(Salsa&Swing In Dongguk).



현란한 춤동작을 선보이는 SSID 회원들.

하지만 SSID 회원들은 공연에서 보다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연습실에 모여 새로운 안무를 만들고 이를 연습하고 있다.

하지만 SSID 회원들은 공연에서 보다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연습실에 모여 새로운 안무를 만들고 이를 연습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무료 라틴 댄스파티에 초대됐으며 얼마 후에는 경인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한다.

"연습을 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활기를 주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것이 즐겁다"는 이규섭(물리2) 회장은 춤을 추는 사람은 물론 보는 사람까지도 즐겁게 만드는 라틴 댄스의 매력이 어려움을 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인 '축제인장'에서 특유의 열정적 무대로 축제를 한층 뜨겁게 하는 동아리 SSID. 이제 SSID는 오는 5월 말 진행될 '하이 서울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들의 노력이 화려한 의상만큼 빛나는 결과를 맺길 기대한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솔직한 성 올바른 성

성폭력의 기준과 정도에 따른 개념차이

"M.T.였어요. 재밌게 놀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뜨니 선배가 제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불쾌해져서 더러우요. 근데 계속 마주칠 선배잖아요. 그냥 잠든 척하면서 몸을 피했죠. 이후 그 선배가 보이면 도망다녔어요."

2002년 여성부에서 실시한 '대학내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 남학생은 49.8%로 2명중 1명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고 성희롱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39.2%였다. 또한 2001년 12월에는 서울대가 학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음으로 제명처분을 내렸다.

먼저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밖에 인

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보내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과 일반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쫓아다니는 '스토킹' 등을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성희롱'은 우리사회가 남성위주의 사고와 관습에 젖어온 탓에 성에 관한 지점은 농담과 행동쯤으로 치부돼 왔고 개념도 모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98년 '서울대 우정교 성희롱 사건'에서 성희롱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의 길을 열었다. 이에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한다.

등을 성희롱으로 간주했다.

성폭력의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 성추행(강제추행)과 성폭행(강간)이다. '성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폭행·협박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의 행사인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간음 이외의 비정상적 성행위 강요 등을 모두 성추행으로 본다.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이들을 묶어내는 개념이 다르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은 모두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된다.

김은혜 여학생생활 상담원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15x15 grid for a crossword puzzle.

세로열쇠

- 1. 지난해 무산돼 다시 치르는 선거.
2. 원래 유대인 강제거리를 위한 유대인 거주지역을 뜻하는 말. 빈곤·실업, 열악한 주택, 그밖에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불균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도 쓰임. (동) 슬럼가
3. 이번 학생회 선거 투표가 시작되는 요일.
4. 상식적 판단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기묘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속씨. 규모가 작은 것을 요술이라 칭함.
5. 길을 떠나 나갈. 일을 시작하여 나갈. (반) 도착
6. 예정과 의리. 사람이 행하여야 할 올바른 예와 도리.
7. 5월에 열리는 우리학교 축제 이름.
8. 현재 대 미국 전쟁중인 중동 국가.
9. 같은 학교 출신이나 같은 학과의 학자들끼리 만들어지는 배타적인 파벌.

1359호 정답

15x15 grid with numbers for the crossword puzzle answers.

당첨자

이수영(세무회계3)
이세주(국교4)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자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본사에 비치된 퍼즐 정답함에 넣어주시고요. 정답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4월 7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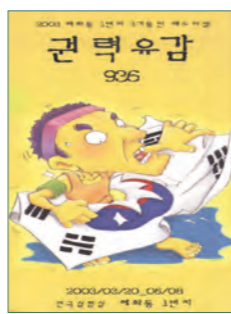
편집자

가로열쇠

- 1. 주사위·말 등을 이용해 판 위에서 하는 게임. 이번 호 문화 테마 면에서 이것을 하는 장소를 소개했음.
2. 지질시대의 유체·유해 및 흔적이 퇴적물 속에 그대로 보존되는 것의 총칭.
3. 일반적으로 정해진 어떤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반) 공급
4. 첫머리. 맨 앞. (1) ~에 서다
5. 해가 뜨는 것. (반) 일출
6.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학생회장 후보가 나온 단과대.
7. 다른 의견. (1) 선생님 말씀에 ~를 제기합니다
8. 경제학과 소모임. 이번호 학술면에 관련기사 게재.
9. 삼국 중 하나로 박혁거세가 건국한 나라.
10. 나라와 나라간의 교제. 세계 각국에 관한 일.
11. 벌목에 속하는 한 과. 다리 제1절이 넓적해 꿀을 모음.

새 소식

권력유감



2003 해화동 1번지 3기 동인 페스티벌 '권력유감 - 936' 전이 오는 6월 8일까지 해화동 1번지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권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4월 9일~4월 13일 = On Air - 랠릿(세이스피어 작·양정웅 연출) △5월 1일~5월 25일 = 파티(김낙현 작·연출) 등 고전과 현대극을 넘나드는 출품작들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2-762-0810

부시망언, 까발리다



미국에서 '부시즘'이라 불리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모아놓은 책이다. 국제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 미치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들은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 이후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가 된 발언 내용과 함께 풍자성을 지닌 간단한 해설은 미국, 나아가 세계의 현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노지연 옮김/ 현실과 미래/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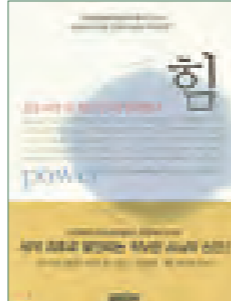
물고기 남자 1, 2권



이 책의 주인공은 반인반어의 40대 평범한 직장인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물고기 남자의 기괴한 모습은 실현되지 못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현실적인 판타지와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함께 삼입된 그림이 독서의 재미를 더해줄 것이다.

권병두·김승규 지/ 쪽사요/ 각 9천원·9천500원.

삶을 바꿀 수 있는 힘, 내 안에 있다



베트남의 승려이자 시인인 저자가 현대인에게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깨어있는 마음'이 "진정 살아있게 하는 힘이"며 행복하게 하는 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지, 왜 깨어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과 해답이 차분하게 서술되어 있다.

틱낫한 스님 지/ 명진출판/ 8천900원.

일회용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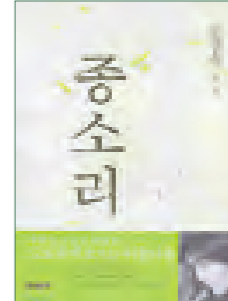
오늘날에도 노예가 존재하며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될 가능성을 안고 산다고 고발하는 책.

가난한 나라에서 밀입국한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건너가 노동력 착취와 인권탄압을 당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은 세계와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케빈 베일스 지/ 편동원 역/ 이소출판사/ 1만6천원.

중소리



'외판방' 등으로 이름을 알린 소설가 신경숙이 신간 '중소리'를 발표했다. '중소리' '혼자 간 사람' 등 총 6편의 단편소설이 담겨 있는 이번 소설집은 모든 인간·사회적 유대관계로부터 고립된 고독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조금은 느린, 사람과 사람간의 결별과 화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이다.

신경숙 지/ 문학동네/ 8천500원.